metro®
메트로 2014년 4월 29일 화요일 제2966호 www.metroseoul.co.kr

"편히 잠드소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이여, 통한의 바다를 떠나 편히 잠드소서'. 28일 오후 침몰 세월호 희생자들의 공식 합동분향소가 설치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안산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참사 학습효과… "내 안전 내가 지킨다"

기내 안전방송 초집중
'생존수영' 배우기 북적
관련서적 판매도 급증
수업 과목에 넣어달라
건성교육 진지모드로

#사례1 서울 은평구에 사는 가정주부 조정혜(39) 씨는 지난 주말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동네 수영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평소 한산하던 수영장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수강생이 몰렸기 때문이다. 강사에게 물어보니 "세월호 참사 때문인지 자녀에게 수영을 가르치려는 학부모의 문의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며 "다음 달 수강 시간표를 다시 짜야할 정도"라고 말했다.

#사례2 지난 금요일 제주도 출장을 다녀온 IT업체 직원 강성진(34) 씨는 비행기 안에서 재미난 광경을 목격했다. 창밖을 내다보거나 신문읽기에 열중하기 일쑤인 대부분의 승객들이 기내 탑승 안전 방송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스튜어디스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녀에게 따라하게 시키는 학부모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기내 방송을 끝낸 스튜어디스는 "며칠 전부터 산소마스크 사용법 등을 묻는 승객이 생겼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깨어나고 있다.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경찰 등만 믿고 있다가는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에서다. 비행기나 선박, KTX 등에 탑승하며 건성으로 지나쳤던 안전교육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생존노하우'를 배우려는 수강생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8일 다음 아고라 등 포털사이트에는 초중고교 안전교육을 수업 과목으로 만들어 달라, 교사·학생을 상대로 현실적인 안전교육을 제도화해 달라는 등의 요청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슈 청원을 신청한 한 학부모는 "TV 광고를 통한 캠페인보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불났을 때 아파트 탈출 방안, 대피 방안, 지진 대피방안, 붕괴와 지하철 사고 시 안전 대책 등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오산시 등이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수상 사고 예방교육 등이 포함된 '수영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다른 지자체에도 수영 과목 개설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아예 자녀의 손을 잡고 직접 안전 교육 시키는 부모들도 있다. 서울 메트로 등에 따르면 주말에 버스·지하철에서 비상대피 방법을 설명하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탈출 노하우를 가르치는 학부모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안전 교육 관련 서적 판매도 증가 추세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KBS2TV에서 방영되는 '위기탈출 넘버원'을 만화로 엮은 시리즈는 출간된 지 8년이나 지났지만 최근 들어 찾는 사람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외국 안전 교육 관심 늘어

외국 안전 교육 사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등에 따르면 일본은 179개 체험장에서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대처훈련을 받는다. 독일의 안전 교육기관인 시민보호아카데미는 450개 과정을 개설해 전 연령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크루즈선의 경우 승객에게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법부터 바다 수영법까지 안전 교육만 1시간가량 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안전 교육은 주로 동영상을 보는데 그치는데 반해 선진국에선 실제로 불을 끄는 등의 체험을 한다"며 "단지 안전교육을 학교장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필수 과정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인양은 가족과 협의 결정"

기상악화 등으로 사흘 넘게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의 구조 및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정부는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실종자 가족과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8일 "인양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가족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수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에서 가족과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양 비용과 관련해서는 "선박이 침몰한 경우 책임은 기본적으로 선사에 있다. 그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잠수부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날까지 해경 4명, 해군 2명, 민간잠수사 1명 등 총 7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1명은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했고, 다른 6명은 잠수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스페인 여객선 구출작전서 배우자

기자 수첩
조 선 미 <글로벌부 기자>

'사랑한다. 보고싶다. 어른들을 용서하지 말고 편히 잠들거라.'

며칠 전 덕수궁 돌담길을 끼고 퇴근하는 길에 봤던 노란 리본에 적혀있던 문구다. 궂은 날씨 속에서 펄럭이는 수많은 리본들은 누군가를 원망하며 소리없이 아우성치는 듯 했다.

세월호가 서서히 잠겨가던 두 시간 가량. 배에서 우왕좌왕하며 보낸 금쪽같은 시간에 제대로 대응이 이뤄졌다면 승객들은 어떻게 됐을까.

지난 주말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근해에서도 여객선 사고가 발생했다. 334명을 태운 여객선에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였다. 하지만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승객과 승무원은 전원 구조됐다.

화재 사고가 접수되자마자 스페인 해상구조 당국은 헬기와 선박을 급파했다. 여객선은 안전하게 유도됐고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으로 올라왔다. 당국의 일사분란한 대응으로 구조 작업은 척척 진행됐다.

세월호 침몰 초기 안내 방송을 통해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 배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라"며 학생들을 안심시킨 승무원. 가장 먼저 조난 신고를 한 학생에게 경도와 위도를 물으며 시간을 허비한 해경.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한국과 스페인의 구조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

스페인 당국의 발빠른 초기 대응은 완벽한 훈련 덕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재난 매뉴얼이 현장에서 '무조건반사'될 수 있도록 몸에 익혔다는 설명이다. 한국 승무원과 관계 당국은 스페인 여객선의 구출 작전을 뼛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

묵념하는 단원고 학생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다시 시작한 28일 오전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노제를 마치고 학교를 떠나는 차량에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 일가 대출 신협 특검

10년간 3천억대 자산 유출 포착… 페이퍼컴퍼니 압수수색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1997년 부도가 난 ㈜세모의 대다수 사업부와 3000억원에 가까운 자산을 10년에 걸쳐 고스란히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선 유 전 회장이 기업의 대주주로서 부실을 초래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 고의 부도를 내고 헐값·내부거래 등을 통해 모든 자산과 사업부를 무늬만 바꿔 그대로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대양 사건 이후 1997년 부도가 난 ㈜세모는 당시 자산 규모가 2800억원대의 그룹으로, 영위 사업부만 51개에 달했다. 유 전 회장 측근은 그러나 법정관리 졸업 전까지 10년에 가까운 기간에 2000억원이 넘는 자산을 빼가 수십개의 관계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대출과 관련해 신용협동조합 10여 곳에 대한 특별 검사에 돌입했다. '금융판 중수부'인 금감원 기획검사국이 산업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에 대해 25일 특검에 착수한 이래 두 번째 조치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차남 혁기(42)씨 소유 페이퍼컴퍼니 '키솔루션' 사무실과 혁기씨의 과거 대구 주거지, 선릉로에 위치한 모래알디자인 사무실, 유 전 회장 최측근 중 한 명인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의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계열사 간 물품 및 용역거래 내역, 외환거래 내역, 자금흐름과 관련한 회계장부 등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사의 표명' 출근은 했지만…

정 총리 주요 회의만 참석 제한적 행보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중앙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수습 후 수리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 총리는 앞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일정만 챙기는 제한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표명 후 첫 날인 28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 평소처럼 출근, 간부들과 티타임을 하고 세종청사 간부들과의 영상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국조실 업무와 세월호 사고수습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업무를 챙겼다.

그는 당분간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와 화요일 국무회의, 목요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도에만 참석할 계획이다. 각종 기념식, 개소식 등의 행사 참석은 취소하거나 반려할 예정이며 각종 위원회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해 정 총리는 집무실에 머물며 전남 진도 현장에 내려가 있는 홍윤식 국무1차장을 통해 현장 상황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조현정기자

"북 4차 핵실험 반대" 강한 메시지

한·중 정상회담 상반기 개최… 이르면 내달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가능한 앞당겨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8일 "중국 측과 상반기 중에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달 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전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현재 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함께 왕이 부장의 방한 일정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핵 위기 국면 속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에 적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반대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야, '기초연금절충안' 당론 채택 못해

●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론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의 법적 기반이 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법안의 4월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30명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 황병서 10일 만에 '차수' 고속 승진

● 북한 김정은 체제의 실세로 꼽히는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군대 계급에서 원수 바로 아래인 차수에 올랐다.

황병서는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비행사(조종사)대회 때 대장(별 4개)으로 승진한 것이 확인된 데 이어 10여 일 만에 차수로 고속 승진했다.

출·퇴근 인사 사라진 경선 운동

세월호 참사로 선거운동을 접었던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28일 당내 경선 일정에 맞춰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득표 활동은 극히 제한된 모습이다.

우선 전국적인 희생자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시끄러운 캠페인은 자제했다. 또 선거전의 열기를 끌어올렸던 차량유세나 출·퇴근길 인사 등은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12일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달 11일 경기지사 경선을 각각 앞두고 있지만 선거철이라는게 무색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도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원혜영·김진표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 대부분이 경기도 안산 단원고의 학생들이다보니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조현정기자

목포해경·119상황실 수사

진도·제주 VTS 이어 압수수색… 근무 태만 가리기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해경과 119상황실을 압수수색하고 '근무 태만'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합동수사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목포해경에 수사관 7명을 보내 상황실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압수했다.

목포해경은 최초 신고 학생에게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 등을 물어 구조 작업에 나서기까지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 근무를 소홀히 했는지, 신고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단원고 2학년 최덕하(18)군으로부터 최초 신고를 받은 전남도 소방본부 119상황실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 최군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119상황실은 2분 뒤 해경에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해경과 119상황실 외에도 안전 설비 업체 등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또 전날까지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제주 VTS를 잇달아 압수수색하고 해경과의 연계 체계, 비상 상황 시 대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두 관제센터가 세월호의 급격한 방향 전환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28일 오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의 '근무 태만'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물살 거세지는 '사리때'

사흘째 구조·수색작업 난항… 시신 유실 막게 '표류부이' 투하

세월호 참사 13일째인 28일 진도 해역에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기상이 좋지 않아 구조·수색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진도 해역은 약한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다. 파고는 1.5~2m, 풍속은 초속 8~13m로 민간 방제선, 어선은 일부 피항하기도 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함정 142척, 항공기 42대, 잠수사 92명을 동원해 선체 4층을 집중 수색하기로 했지만,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수색은 정조시간(오후 1시 19분, 오후 7시 40분)에 진행됐다.

수색 구조활동은 26~27일 시신 3구를 수습하는 데 그칠 만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9일부터 다음달 1일이나 2일까지는 물살이 가장 세지는 사리때(대조기)로 수색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4시 현재 사망자는 188명으로 시신 186구는 가족에게 인도됐다. 실종자는 114명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시신 유실에 대비해 위성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표류부이'를 사고 해역에 투하할 계획이다. 표류부이는 해수면에 떠다니며 풍향, 풍속, 기온, 기압, 해수온도, 위치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다.

/김민준기자 mjkim@

첫 도착 123정 "탈출하라 방송했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100t)은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하지 않았고 진도 해상관제센터(VTS)와 세월호간 교신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구조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월호 승객들을 향해 탈출하라는 경고방송을 하면서 침몰하는 세월호에 선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 승무원인 줄 모르고 이들을 먼저 구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월호를 향해 승객들에게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경고 방송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도착과 동시에 단정을 내렸고 함내 방송장비로 방송을 수차례 했다"며 "세월호에 들어가 선내 방송으로 퇴선 명령을 하려 했으나 선체가 이미 많이 기울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들이 승무원인 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긴박한 상황에서 승무원과 승객을 구분하기 어렵고 유니폼도 입지 않았다"며 "탈출승객이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서 분간이 안 갔고, 우선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

단원고 학부모회 다시 진도로 단원고 1·3학년 학부모회 어머니 19명이 28일 오후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는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아 학부모를 위로한 뒤 현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이빙벨보다 첨단 'PTC'군 "조류 강해 투입 접어"

해군이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 이송용 캡슐(PTC)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현지 조류가 강해 접은 것으로 드러났다. PTC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다이빙벨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자체 감압장치는 물론 훨씬 개량된 첨단장비도 설치돼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다이빙벨 투입 실패와 관련해 "다이빙벨이든 다른 구조장비든 가장 중요한 것은 조류"라면서 "조류가 2노트(시속 3.7㎞) 이상이면 구조하는 장치들이 자세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다이빙벨이나 다른 장비에 타고 있던 구조요원들이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세이프가이드라인(생명줄)도 엉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에서는 PTC를 투입하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조류 때문에 쓰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팬티만 걸친 세월호 선장 해경, 수사영상 공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가 탑승객을 두고 나 홀로 탈출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28일 공개됐다.

해양경찰은 사고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 한 직원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9분 45초간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16일 오전 9시 28분 58초부터 11시 17분 59초까지 주요 장면을 중간중간 찍은 것이다.

영상에는 이 선장이 팬티만 입은 채 속옷차림으로 해경의 도움을 받아 여객선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정복이 아닌 옷차림이어서 선장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조타실을 빠져나온 이 선장은 오전 9시 35분께 경비정이 도착하자 먼저 구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 당시 영상을 보면 여객선은 절반 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이 선장이 배가 많이 기울어 탈출하기도 어려웠다는 수사본부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 영상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단원고 전 학년 수업 재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임시휴교에 들어간 단원고가 사고발생 13일 만인 28일 전학년 수업을 재개했다.

등교 첫날 1·2학년 학생들은 교과수업 대신 담임교사, 상담전문의 등과 함께 상담시간을 가졌다. 3학년은 24일부터 수업을 받았다.

병원 입원 중인 2학년 학생 74명과 통원치료 중인 1명 등 구조된 2학년 75명에 대한 등교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병원 전문의, 학부모 등과 면밀히 협의해 생존 학생의 학교 복귀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서울여대, 학습공동체 협약

서울여대는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학습공동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양 기관은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식 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리더십 프로그램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사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덕성여대, 무감독 시험 '성공'

덕성여자대학교가 이번 학기 중간고사부터 '무감독 시험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덕성여대는 21일부터 5일간 치러진 중간고사에서 담당 교수가 무감독 시험을 신청한 총 16개 강좌, 507명의 학생이 감독 없이 시험을 치렀다.

덕성여대는 앞으로 무감독 시험이 더 많은 과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충무공 탄신 469주년 행사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69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중에도 납품사 카드 써

롯데홈쇼핑 전 영업본부장 등 5명 구속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 영업본부장 신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 두 곳으로부터 방송시간과 횟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2007년 2월부터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2월 퇴직하고 회사 자문 역할을 했다. 신씨는 퇴직 후에도 납품업체가 건넨 법인카드를 썼다. 검찰이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뒤인 지난달 10일까지도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를 포함해 납품업체의 뒷돈을 받거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린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기간에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한 신헌(60) 롯데쇼핑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신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신 대표가 이모(51·구속기소) 방송본부장 등과 공모해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2억2500만원, 이모(47·구속기소) 전 생활부문장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수천만원을 합해 3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 64%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64.2%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2013년 6월 기준)은 1만1259원으로 정규직 1만7524원의 64.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은 2010년 6월 57.2%에서 2011년 61.3%, 2012년 63.6% 등으로 상승해 숫자상으로는 임금 격차가 줄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줄어드는 폭이 둔화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6067원으로 전년보다 7.3% 올랐다. 정규직은 한해 전보다 6.8%, 비정규직은 7.9%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에는 단시간근로자(13.4%)의 시간당 임금총액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파견근로자(11.1%), 용역근로자(8.9%), 기간제근로자(8.5%), 일일근로자(6.0%)가 뒤를 이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건설근로자 등이 포함된 일일근로자가 1만2766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근로자가 8804원으로 가장 적었다.

/조현정기자 jhj@

대전 아모레퍼시픽 공장 불 28일 오후 2시 29분께 대전 대덕구 아모레퍼시픽 매스코스매틱 사업장에서 불이 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POS' 해킹… 카드정보 13만건 빼내

식당·카페 등 점포에서 결제와 상품관리에 쓰이는 POS(매장관리시스템)을 해킹해 이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3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이모(36)씨와 함께 경기도의 모 POS 단말기 관리업체 서버를 해킹하고 가맹점 85곳의 POS 단말기에 접속해 총 13만6000여건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카드 정보를 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컴퓨터 전문가인 이씨에게 약 2000만원을 주고 해킹 범행을 꾸몄다. 이씨는 POS 단말기에 입력되는 정보를 파일로 자동 저장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든 뒤 가맹점 컴퓨터에 침입해 이를 심어놓는 수법으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준기자

"길음뉴타운 1구역 조합설립 무효"

대법 판결 일정지연 불가피

서울 길음뉴타운의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이하 길음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2010년 조합 설립후 추진돼온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일대 10만7534㎡(길음1구역)의 재개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길음1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김모씨 등 5명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할 수 있어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는 신청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민 동의율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북구는 2010년 4월 길음1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 1360명 중 1033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김씨 등 5명은 동의율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봄꽃게 계절이 왔어요 28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수협 공판장에서 직원들이 갓 잡아 온 꽃게를 선별하고 있다. /태안군 제공

판교신도시 특급호텔 개관

판교신도시 중심부에 특급호텔이 건립돼 29일 문을 연다.

성남시는 사업자 미래에셋컨설팅㈜ 판교지점이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2(삼평동 664) 일원 3310㎡에 건립한 지하 6층, 지상 16층(연면적 4만1520㎡) 규모의 특급호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가 29일 개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상 7층부터 16층까지 10개 층에 객실 282실을 갖췄다. 연회장, 고급 라운지 등 부대시설도 들어섰다. 호텔 운영은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맡는다.

/윤다혜기자

녹색주차마을 조성 추진

서울시 중랑구가 골목길 주차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은 담장 허물기 공사, 골목 단위 생활도로 조성공사, 그린파킹 시설물 유지보수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장애인복지 책자 배포

서울시 성동구는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책자는 알기 쉽게 제작한 소책자와 시각장애인도 함께 볼 수 있는 점묵자 혼용 소책자 2가지로 나눠져 있다.

'골다공증 예방교실' 열어

서울시 영등포구 보건소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30분 대림1동 소재 보건소 분소에서 구민 대상으로 '골다공증 예방교실'을 개최한다.

이날 모든 참석자 대상으로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골밀도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Russia

Челяб... делае... монст...

Тихий ужас. Старый учебник физики превратили в Книгу мёртвых

ОЛЬГА СУКИНОВА

metro Mexico

Jóvenes leen p... obligación esc...

Día Mundial del Libro. En México sólo 2% de la población tiene el hábito de una lectura permanente

책 읽는 인구 2%, 1년에 3권 이하

멕시코 국민이 책을 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평소에 꾸준히 책을 읽는 멕시코인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했다. 멕시코 전체 국민은 1년에 2.94권의 책을 읽었고, 수도 멕시코 시티 시민은 1년에 6권의 책을 읽어 그나마 체면유지를 했다.

metro Canada

Québec, la meilleure ville pour les femmes

Palmarès. Québec est la meilleure ville où vivre pour les femmes au Canada, selon une étude publiée hier.

퀘백,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1위

캐나다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퀘벡주의 수도 '퀘벡'이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대안정책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원하는 주거 조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살기 원하는 도시로는 1위를 차지한 옛스러운 성곽도시인 퀘벡부터 몬트리올, 알버타 등 퀘벡주에 속한 도시가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퀘벡주에서 시행하는 부모지원제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몬스터로 변신하면 행복해요"

공포영화 괴물분장 이색 취미 남성 눈길… 어울리는 동작도 연습

러시아 첼랴빈스크주에 사는 키릴 키릴로프는 자신을 공포 영화의 괴물과 똑같이 분장하는 이색 취미로 유명하다.

키릴로프는 "코스프레나 축제 참가만을 위해 괴물 분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실감 넘치는 몬스터로 변신하는 것 그 자체에 매력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완벽한 몬스터로 변신하기 위해 직접 특수 분장 기술도 익혔다.

키릴로프는 "어렸을 때부터 공포 영화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었다"며 "지금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공포 영화를 보며 배우의 특수 분장을 평가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간혹 나에 대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괴물이나 악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그저 특수 분장에 대해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키릴로프는 종종 필요한 소품을 구하기 위해 페테르부르크같은 대도시까지 직접 찾아간다. 그가 살고 있는 첼랴빈스크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완성도 있는 분장을 위해서라면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마스크 제작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기 때문에 몇 달씩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포 영화의 괴물 마스크를 만들고 나면 그에 어울리도록 몸 동작과 걸음 등도 연습해 완벽한 몬스터가 되려고 애쓴다"고 덧붙였다.

키릴로프는 이색 취미를 가진 덕분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겪기도 했다. 그는 "할로윈 파티 때 분장을 한 후 마르슈루트카(승합차 택시)를 탔다. 자리가 없어 운전기사 옆에 앉게 됐는데 내가 내릴 때까지 기사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매우 불안해 하며 어쩔 줄 모르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요즘 키릴로프는 첼랴빈스크에서 한 달 뒤에 열리는 좀비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그는 이번 좀비 축제에서 1981년 개봉된 공포영화 '이블 데드'의 몬스터로 분장할 계획이다. "취미로 괴물 분장을 시작했지만 항상 연구를 거듭했기 때문에 실감나는 분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괴물 분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올가 수키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France

Quand la pub fait le tro...

Paris

파리 '낙서 광고' 몸살 찬성의견도 있어 혼란

프랑스 파리에서 낙서형태의 광고가 길거리를 더럽혀 문제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낙서 광고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에까지 쓰여졌다. 이는 물론 불법행위다.

파리시 공공위생 담당자는 "보도에 낙서로 광고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차역이나 지하철 내부에 낙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위생관리부에 따르면 파리시는 지난해 총 40만 8000㎡에 달하는 규모의 낙서를 지웠다. 이는 농구장 38개를 합친 크기와 같다. 회사가 광고를 위해 낙서를 하는 경우엔 벌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KFC와 디젤 매장은 거액의 벌금을 내고 광고를 지워야만 했다.

◆ 농구장 38개 지워

하지만 광고전문가들은 이러한 '초록 낙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닥에 한 낙서는 소나기가 오면 지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알레르기연구단체(Arcaa)도 한 캠페인을 통해 찬성하고 나섰다.

단체 대변인은 "거리 바닥에 낙서를 해도 피부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루종일 그곳에 서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가 오면 바로 지워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선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거리 낙서 광고를 반대하는 단체의 한 남성은 "모두가 사용하는 거리가 낙서로 가득차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줄리앙 마리발 기자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1969.26 (-2.40)

 코스닥 556.96 (+0.48)

 금리(국고채 3년) 2.88 (+0.01)

 환율(원·달러) 1034.50 (-6.00)

뉴스&뉴스

안마기로 효도하세요~ 28일 서울 황학동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모델들이 안마의자와 등쿠션 안마기를 시연해보고 있다. /신세계 제공

韓-中 경제규모 격차 7배

●한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격차가 7배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1조3043억 달러로 중국 GDP(9조1814억 달러)의 14.2%였다. 중국이 한국의 약 7.0배 수준이다. 중국이 지난 2003년부터 두자릿수 이상의 고도성장에 나서면서 경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김민지기자 minji@

일본·러시아 신용등급 ↓

●일본과 러시아 등 6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무디스·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두 곳 이상에서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을 받은 국가가 6개국으로 집계됐다.

이들 국가는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다. 국제신용평가사 3사 중 두 곳 이상이 부정적으로 전망한 국가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본은 S&P·피치로부터 부정적 전망을 받았다. 막대한 정부 부채를 안은 일본의 재정 상태가 동일 신용등급 국가 중 가장 취약하다고 S&P는 지적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크림 사태의 여파로 강등 후보로 꼽혔다. /조선미기자 seonm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3억 이하만 지원

5월부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수도권은 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주택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고자 다음 달 계약 체결분부터 전세 보증금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5500만원)인 저소득 가구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기준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보증금 제한 없이 전세 자금을 빌려줬지만 앞으로는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3월 말 현재 약 3만2000가구에 1조3000억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다. 올해 말까지 총 6조4000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美 '5월 증시 비관론' 다시 고개 드나?

FOMC 결과에 주목…"한국 충격 적을 것"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자 미국 월가에서는 '5월 증시 비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상황에 따라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주에는 이를 둘러싼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로선 미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설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분리주의 친러시아 민병대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원들을 억류하고, 정부군에 체포된 민병대원과의 맞교환을 요구하며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 리서치는 '5월 증시 비관론'을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 국채금리 변동성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988년 이후 국채금리 동향을 분석한 결과, 5월엔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월의 변동성은 28%에 불과했으나 5월에는 변동성이 46%로 커졌다"고 언급한 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는 달"이라고 제시했다.

이처럼 미국 증시를 둘러싼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코스피도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적 시즌에다 연휴까지 겹쳐 보수적인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영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도 주목받고 있다"면서 "자산 매입 규모는 매달 FOMC 회의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축소 조정이 예상되지만, 이에 따른 시장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어린이날 선물 싸네! 롯데마트가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점 토이저러스매장에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양한 완구들을 최대 50% 가량 저렴하게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땐 최대 3배 보상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해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다만 '중대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한정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정무위는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단 구체적인 기관 설립 방법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 신설하고,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립하는데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금소위에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1000원 팔아 46원 남겨

기업 이익률 사상 최저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1000원 어치 물건을 팔아 46원 정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상장기업 1541개와 각 업종을 대표하는 주요 비상장기업 169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2013년 기업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6%를 기록해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3년 한은이 매출액영업이익률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기업이 올린 매출액 중 원가와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으로, 지난해 기업들이 평균 1000원 어치를 팔아 46원을 남겼다는 의미다.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7%로 전년과 같았으며 비제조업은 전년에 비해 3.0% 하락한 2.7%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판매관리비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하락했다"며 "판매관리비 중에서도 급여와 퇴직 급여 등 인건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률 역시 영업외수지 적자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년 4.5%에서 3.2%로 크게 떨어졌다. 제조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비금속광물, 산업용기계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하락하면서 6.2%에서 5.1%로 떨어졌으며 비제조업 역시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김민지기자

‘저금리 전환’ 대출광고 속지 마세요

금감원 사기 주의보···1분기 상담 신고 23% 차지

#울산에 거주하는 임모씨(남·30)는 지난 3월 말 한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사기범은 임씨가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선 사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하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 씨는 사기범이 시키는대로 대부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고 예치금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으나 사기범은 이를 가로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주로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 대출을 받게 하면서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낮은 금리 대출광고로 피해자를 현혹하며, 낮은 금리 대출 전환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있다며 송금토록 유인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대출사기 관련 상담신고는 5318건으로 전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2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금전 요구 시 대출사기로 의심하고 사기에 이용됐을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한다"며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1332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는 지급정지 이후 피해금을 반환받기가 더 편리해졌다. 오는 7월 29일부터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출사기도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 그간 대출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서만 피해금 반환이 가능했다. 그러나 7월 말부터는 별도의 소송 없이 은행 영업점에 내방하여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영화관을 집으로 옮겼네!" 삼성전자는 다음달 31일까지 105·78인치 커브드 UHD TV 제품에 대한 예약판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격은 105인치가 1억2000만원, 78인치 제품 1290만원이다. /삼성전자 제공

펀드슈퍼마켓 개장 출발 '굿'

계좌 개설 수, 증권사 훨씬 웃돌아

국내 첫 온라인전문 펀드 판매사이트인 '펀드슈퍼마켓'이 개장 이틀 동안 2700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며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었다.

28일 펀드온라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장한 펀드슈퍼마켓에 25일까지 이틀간 2700여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됐다.

시중 금융회사의 펀드계좌 개설 추이와 비교하면 은행엔 미치지 못하지만 증권사에 비해선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시중 은행 18곳에서 지난 3월 한 달간 판매된 펀드 계좌 수는 1041만개로 전달보다 7만6000개 늘었다.

시중 증권사 40곳에서 이 기간 개설된 펀드 계좌 수는 377만개로 1달새 1만1400개 증가했다.

은행은 하루에 3800개, 증권사는 19개의 새 펀드계좌가 열린 셈이다.

특히 펀드 환매열풍이 거센 속에서 투자자들이 수수료 등 투자비용을 낮춘 펀드슈퍼마켓에 거는 기대감이 나타났다.

최근 1년새 은행과 증권사를 합해 해지된 펀드계좌 수는 54만3000개를 넘는다.

펀드슈퍼마켓에서 거래하려면 먼저 우리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해 계좌를 만들고서 온라인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원론적 단계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장에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장 전문가들은 펀드슈퍼마켓이 자리잡으려면 IFA 제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수많은 펀드의 품질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FA는 보험 위탁판매를 담당하는 보험사 독립법인대리점(GA)처럼 펀드슈퍼마켓 투자자들에게 개별 펀드에 대한 자문 및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앞서 1992년 온라인 펀드 판매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시장이 자리잡기까지 10년 정도 걸렸다. /김현정기자 hjkim1@

새 브랜드 아이덴티티 'LUV'로

다양한 페스티벌로 고객과 소통

쌍용차가 1983년 3월에 출시된 이후 31년의 역사를 지닌 '코란도' 브랜드의 재도약을 선언했다. 출시 이후 2014년 3월까지 국내외 약 60만 대가 판매됐으며, 현재는 코란도C,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 삼총사로 재탄생했다.

이들 삼총사의 2013년 국내외 총 판매량은 10만7706대로 쌍용차 전체 판매량의 75%를 차지했다. 올해도 코란도 C가 1만4359대(내수·수출 포함), 코란도 스포츠가 9768대, 코란도 투리스모가 3930대 팔리면서 순항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쌍용차는 코란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이하 BI)인 '레저 유틸리티 비클(Leisure Utility Vehicle, 이하 LUV)'을 알리고 'I LUV Korando(아이 러브 코란도)'라는 슬로건을 내놓으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는 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소비자들은 코란도를 사랑(Love)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쌍용차가 LUV를 BI로 정의한 이유는 도심 레저, 익스트림 레저, 그룹 레저 등에 두루 사용될 수 있도록 풀 라인업을 갖춘 브랜드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SUV 정통성을 지키면서 도심과 아웃도어 레저에 최적화된 패밀리 제품들을 더한 코란도로 현대인의 다양한 레저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쌍용차의 의지를 담고 있다.

◆'엄브렐라 브랜딩' 첫 시도

이번 발표를 통해 코란도는 코란도 삼총사(코란도C,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가 이름을 공유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VI(Visual Identity)를 공유하고 개별 제품 브랜드를 포괄하는 가치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코란도의 입지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국내 자동차 브랜드 중 엄브렐라 브랜딩의 최초 시도로, 쌍용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BI 뿐만 아니라 코란도의 역사, 브랜드명의 의미 등 다양한 스토리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I LUV Korando' 캠페인에서는 TV광고 방영, 온·오프라인 이벤트 개최 등 전방위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역동적으로 전개, 소비자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눌 예정이다. 소비자가 코란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I LUV Korando Festival'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라섬에서 열릴 이 페스티벌에서는 고객 2000명을 초청해 고객들이 마음껏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콘테스트를 연다. 또 오프로드 주행, 차량시승, 콘서트, 각종 레저 체험 등 특별한 경험을 다양하게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말까지 쌍용자동차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SsangyongStory)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3×3만 기억하면 걱정 끝

안랩, 연휴 대비 보안수칙 발표

'3×3을 기억하세요.'

보안업체 안랩이 올해 첫 장기연휴를 앞두고 발생할지 모를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자 별 '3X3 필수 보안 수칙'을 28일 소개했다.

우선 개인PC 사용자는 ▲OS(운영체제)·인터넷 브라우저·오피스 소프트웨어 버전 최신 유지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 업데이트·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SNS에 첨부된 링크 실행 자제 등이 필요하다.

해커의 표적이 되기 쉬운 스마트폰 사용자는 ▲문자 메시지·SNS에 포함된 URL 실행 자제 ▲모바일 전용 보안 앱·스미싱 탐지 앱 설치 ▲알 수 없는 출처(소스)의 허용 금지 설정 등이 필요하다.

조직 보안 담당자는 휴가를 떠나기 전에 ▲사내 모든 PC 및 서버의 OS·웹페이지·응용소프트웨어 보안 상황 점검 ▲연휴기간 서비스하지 않는 PC·시스템의 조직 내 네트워크 연결 차단 ▲비상 연락 체제 구축 등을 해야 한다.

한창규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긴 연휴에 각종 사회 이슈가 발생한 분위기를 틈타 스미싱,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은 물론 기업, 기관에서도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통신시장 침체, 출고가 인하 '만지작'

KT, 갤럭시S4 미니 사실상 무료…베가 시크릿업·옵티머스GK 등도 협상중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때문에 일어난 순차적 영업정지 타개책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기존 보조금 투입 효과와 유사한 가격 할인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데다 제조사들의 우호적인 자세도 단말기 가격 인하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27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KT는 전용 기종인 '갤럭시S4 미니' 가격을 기존 출고가의 절반인 25만9600원으로 인하했다. 정부가 정한 한도인 27만원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실상 단말기 가격을 지급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KT는 팬택 '베가 시크릿업'의 출고가 역시 다음달 초 인하할 계획이다. 또 LG전자와 '옵티머스GK' 모델에 대한 추가 가격 인하 문제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휴대전화 단말 가격 인하 경쟁은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 현재는 협상 결렬로 판매가 잠정 중단됐지만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팬택 베가 시크릿업 모델의 출고가를 95만4800원에서 59만9500원으로 낮췄다.

이같은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SK텔레콤도 영업재개가 이뤄지면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재개에 나선 KT는 '갤럭시S4 미니' 가격을 절반가량 낮추고, '베가 시크릿업' '옵티머스GK'에 대한 출고가 인하 검토를 위해 제조사와 협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KT 제공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기기변경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KT는 27일부터 휴대전화 구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납부한 누적 기본료가 70만원을 넘으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반납을 조건으로, 남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휴대전화 할부금과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스펀지' 플랜 요금제를 새롭게 내놨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0일 단말기를 24개월 이상 사용 중인 고객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 'LTE8무한대 80'이나 'LTE무한 85'로 갈아타면 기존 1만8000원 할인에 1만5000원을 추가 할인해주는 '장기고객 대박 할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가 해제되는 사업자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결론은 사업자별로 차별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ssh814@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 | KDB대우증권 동양증권
하나은행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입장권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공연예매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공연문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6422
www.primephil.net

shin youngok

3비트 SSD 대중화 시대 열린다

삼성 데이터센터향 양산…생산성 높아져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비트 낸드플래시를 채용한 데이터센터향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양산을 시작했다.

3비트 낸드플래시란 데이터 저장 최소 단위인 셀(Cell) 하나에 3비트를 저장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는 2비트 제품 대비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삼성전자는 2012년 PC용 3비트 SSD를 세계최초 양산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데이터센터용 제품을 본격 양산하며 '3비트 SSD 대중화'를 앞당겼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출시한 데이터센터향 3비트 SSD는 10나노급 128기가 3비트 낸드플래시가 탑재된 제품으로, 기존 2비트 SSD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과 품질을 구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2년 고성능 3비트 SSD(840 시리즈)를 출시한 후 지금까지 업계 유일하게 3비트 SSD를 양산하며 울트라 슬림 노트북 시장을 석권해 왔다.

또 지난해 글로벌 브랜드 SSD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올해에는 차세대 대규모 데이터센터향 3비트 SSD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삼성전자의 데이터센터향 3비트 SSD 'PM853T SSD' 제품은 3가지 용량(240·480·960GB)으로 제공돼 고객 니즈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

전영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부사장은 "고성능 3비트 SSD가 PC 시장에 이어 새롭게 데이터센터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3비트 SSD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IT 고객에게 더 높은 투자 효율을 제공하는 차세대 대용량 SSD를 적기에 출시해 SSD 시장을 더욱 빠르게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는 세계 SSD 시장이 지난해 94억 달러 규모에서 올해 약 124억 달러로 30% 이상 성장하고, 2017년에는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영기자

삼성SDS 'e-Test' 손뗀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미래부, 29일까지 관리기관 접수

삼성SDS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e-Test' 사업에서 20여년 만에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홈페이지에 "국가공인 민간자격 'e-Test 프로페셔널' 관리·운영권 양수기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e-Test'는 정보기술 동향, 정보보안, 정보윤리 및 정보통신과 관련된 지식뿐 아니라 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툴 및 인터넷 정보검색 등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정보소양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정보활용능력 평가 시험이다.

1989년 삼성그룹 사무자동화(OA) 자격제도가 기반이 돼 시작됐으며, 1999년 삼성SDS가 주관하면서 명칭도 지금의 e-Test로 변경됐다. 2001년에는 당시 정보통신부가 e-Test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인가하면서 관심도 늘었다.

현재는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하대, 동아대, 인천대 등 여러 대학에 졸업인증 및 학점인정 자격으로 채택됐다. 자격 취득 시 군 특기적성병(기술행정병)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또 삼성그룹, 포스코, KT, SK그룹, 농협중앙회, 대한지적공사 등은 정보활용능력평가 자격으로 e-Test를 채택하기도 했다.

e-Test 자격증을 획득한 이들은 20여년간 약 20만명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 됐다.

다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대부분 사무를 보는데 필수 프로그램으로 자리하면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출중한 실력을 갖춘 이들이 많아 이 같은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 시장에선 자격증 유무가 하나의 화두로 작용하기 때문에 e-Test 사업에도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 관계자는 "'e-Test 교육 사업이 큰 규모도 아닌데 굳이 대기업이 진출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며 "삼성SDS도 미래부와 꾸준한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에 이 같은 사업을 양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사업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상 e-Test와 같은 IT 교육 사업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할 사업으로 보인다"면서 "중소기업 중 적절한 사업자가 선정돼 e-Test 자격증 사업 역시 원활히 이끌어 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최정예 사이버보안 인력' 모집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정예 사이버보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재직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2일까지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까지 창의적인 핵심인재 5000명 양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최정예 사이버보안(K-Shield) 인력 양성사업' 교육과정은 정보보호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고 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을 거쳐 인증하는 과정이다. 지난해 대비 50시간 늘어난 총 200시간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에 선발된 교육생은 협력교육기관에 1차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차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뒤 평가를 거친 교육생에 한해 최정예 사이버 보안 인력으로 최종 인증서가 부여된다.

최종 인증서를 부여받은 인증대상자 전원은 사이버보안전문단으로 임명돼 국가 사이버 위기 시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활약하게 되며, 정보보호 난제를 해결하는 데도 활약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화물운송 통합관리 OK KT는 전국화물운송주연합회와 손잡고 화물운송 통합주선망인 '화물마당'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합주선망은 화물운송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KT 제공

'통 큰' 넥슨 세월호 성금 10억원

국내 1위 게임 업체 넥슨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10억원을 성금으로 내놓는다.

넥슨의 성금은 세월호 관련 기부금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28일 "이번 사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전 국가적인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음을 담아 1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생존자들의 재난심리치료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기부처를 선정해 전달할 예정이다.

넥슨 홍보실 곽승훈 실장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우주정복 참가할 지원자 찾아요"

엔씨 인턴사원 공개 모집

엔씨소프트는 28일부터 5월9일까지 하계 인턴사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프로그래밍 ▲게임 기획 및 설계 ▲아트 ▲고객경험 설계 및 분석 ▲게임사업기획 ▲신규사업기획 ▲해외사업관리 ▲브랜드 ▲네트워크 엔지니어 ▲IR ▲경영분석 및 전략 ▲언론홍보 ▲엔씨소프트 문화재단 사회공헌 등 17개다.

지원 자격은 대학(원) 졸업 예정자(2014년 8월 또는 2015년 2월) 및 기 졸업자이다. 전형은 지원서 접수 이후 서류 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NC TEST) – 면접 순이다.

합격자 발표는 6월 중순 개별 통보된다. 합격자는 7월7일부터 8월22일까지 7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엔씨소프트는 우수 인턴 수료자에게 장학금 혜택과 정규직 입사 기회를 제공하는 '엔씨 플래그십 제도'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구현범 인사총무그룹 전무는 "새로움을 창조해 나가는 엔씨소프트의 여정에 함께 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품고 있는 인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

우주 정복
2014. 4.28 - 5.9
http://kr.ncsoft.com
탑승하라
NCSOFT

‘수변 조망권’ 아파트 찜해볼까?

서울 용산, 경기 미사강변도시 등 한강변 아파트 분양 ‘눈길’

다음 달 한강, 하천, 호수 등 ‘수변 조망권’을 갖춘 블루칩 아파트가 잇달아 분양된다. 이들 단지는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동 및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도 쉬워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꼽히곤 한다.

선호도가 높다보니 웃돈 형성에도 유리하다. 지난해 입주 단지 중 웃돈이 가장 많이 붙은 단지는 세종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세종 더샵 레이크파크’였다. 특히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이 가장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 161㎡ T타입은 프리미엄만 2억5500만원이 형성됐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수변 조망이 가능한 입지가 한정적이다 보니 희소가치가 높은 편”이라며 “무엇보다 주변으로 산책로, 공원 등이 조성된 경우가 많아 삶의 질 측면에서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라고 평가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5월 분양되는 아파트 중 전국적으로 5개 단지, 2022가구(일반분양 기준)가 수변 조망권을 확보했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미사강변2차 푸르지오’를 공급한다. 강변도시 최북단에 위치, 단지 앞으로 들어서는 것이 없어 영구 조망권이 확보되는 게 특징이다. 입지적 강점을 살려 한강과 가장 가까운 동 최상층에 전용면적 114㎡ 펜트하우스 4가구를 설계하고, 국내 아파트 최초로 ‘상·하부 이형(異形) 세대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층수에 따른 채광과 조망의 차이를 고려해 10~28층에는 한강이 접한 북쪽에 거실을 배치한 특화평면 세대가, 1~9층에는 거실 남향 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상·하부 세대의 방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거실-주방 위치가 반대가 되면서 전·후면 외부 창호의 위치도 바뀌는 독특한 외관을 갖게 된다.

대우건설은 한강과 남산 조망이 가능한 한강로 일대에서도 분양에 나선다. 용산역 전면2구역을 재개발한 ‘용산 푸르지오 써밋’은 최고 39층, 2개 동 규모로 짓는다. 전용면적 112~273㎡ 아파트 151가구(일반분양 107가구)와 25~48㎡ 오피스텔 650실로 구성된다. 최고 수준의 마감재와 푸르지오의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각오다.

바로 옆 전면3구역에서는 삼성물산이 복합주거단지 ‘래미안 용산’을 분양한다. 최고 40층 높이로 2개동, 전용면적 135~240㎡ 아파트 195가구(펜트하우스 5가구 포함), 오피스텔 782실로 지어진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오피스텔 597실과 공동주택 16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SK건설이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선보이는 ‘꿈의숲 SK VIEW’는 단지 바로 남측에 우이천이 있다. 단지 설계도 남향 위주의 배치를 적용해 세대 내 우이천 조망을 극대화했다. 504가구 전 세대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됐고, 일반에는 288가구가 분양된다.

대림산업과 삼호는 부산시 광안리 앞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e편한세상 광안비치’를 공급한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매립지에 지어지며, 전체 396가구,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이뤄졌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대우건설 ‘미사강변2차 푸르지오’ 조감도.

<수변 조망권 갖춘 5월 분양 단지>

조망권	위치	단지명	전용 면적 (㎡)	총가구수 (일반분양)	시공사
한강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6블록	미사강변2차 푸르지오	93~114	1066	대우건설
한강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푸르지오써밋*	112~273	151 (107)	대우건설
한강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래미안 용산*	135~240	195 (165)	삼성물산
우이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 SK VIEW	59, 84	504 (288)	SK건설
광안리 앞바다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e편한세상 광안비치	84	396	대림산업·삼호

※상기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는 주상복합) 자료 : 각 업체

삼성엔지니어링 ‘찾아가는 환경교실’ 지난 25일 중국 상해 ‘리우청 실험학교’에서 열린 삼성엔지니어링 꿈나무 푸른교실의 ‘찾아가는 환경교실’에서 태양광 하우스 만들기 체험을 마친 임직원 등 봉사자들과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제공

지식산업센터 3.3㎡당 200만원 차이

역세권 여부에 따라 ‘희비’

지하철역과의 거리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 여부에 따라 아파트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업무시설 역시 매매가, 보증금, 임대료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는 지하철역과 10분 이상 멀어지면 3.3㎡당 매매가가 200만원 이상 낮아졌다.

현재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2~3분 거리의 ‘코오롱싸이언스밸리1·2차’ 3.3㎡당 매매가는 710만원이다. 이어 5분 거리 ‘대륭포스트타워3차’는 680만원, 7분 거리 ‘우림EBIZ센터2차’는 620만원, 8분 거리 ‘대륭포스토타워1차’는 610만원이다. 10분 거리 ‘한신IT타워’는 510만원, 15분 거리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는 490만원으로 순으로 파악됐다.

초역세권 지식산업센터와 비교해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10분이 넘으면 3.3㎡당 200만원, 15분이상 이면 220만원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임대료 격차 역시 크다. 역과 가장 가까운 ‘코오롱싸이언스밸리1·2차’의 전용면적 133㎡는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각각 3000만원과 300만원에 형성됐다. 반면 역과 가장 먼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는 같은 면적이라도 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지하철역과 접근성이 좋은 입주사들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며 “최근에는 문정역테라타워와 같이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는 지식산업센터까지 등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주택 분양시장 살아나나

인·허가, 착·준공 늘어

올해 3월 주택 인·허가 및 착·준공과 분양 실적까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올해 3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만8969세대(수도권 1만7438세대, 지방 2만1531세대)로 전년동월대비 2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김포한강신도시(1510세대), 하남미사(875세대), 소사벌택지지구(870세대) 등 경기지역의 실적 증가 영향으로 77.0% 증가했고, 지방은 6.6% 증가하면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어 올해 3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만9059세대(수도권 1만7084세대, 지방 2만1975세대)로 전년 동월대비 12.0%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7084세대가 착공되어 42.3% 증가했고 특히, 경기 안양덕천 재개발지구(4250세대, LH)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전체 실적도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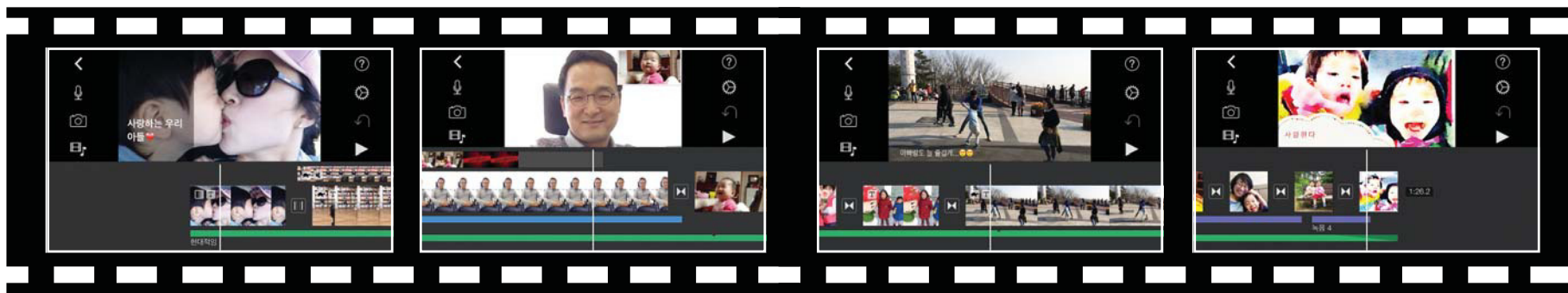
지방은 광주(월남지구), 충남(당진), 전남(광주전남혁신, 오천지구) 등 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3.9% 감소한 2만1975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2만3902세대(수도권 4913세대, 지방 1만8989세대)로 전년 동월대비 11.2% 증가했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동탄2지구(988세대), 남양주별내(574세대), 양주옥정(1256세대) 등 5.5% 증가한 4913세대가 분양(승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은 12.8% 증가한 1만8989세대로, 부산신호지구 사랑으로부영(1388세대), 부산 용호동 원더풀오션W(1488세대), 대구 침산동 화성파크드림(1202세대) 등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만7358세대(수도권 1만1387세대, 지방 1만5971세대)로 전년 동월대비 40.6% 증가했다.

수도권은 특히 서울지역 세곡2지구(2374세대, SH) 대규모 준공 영향으로 48.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대전 도안신도시(957세대), 경남 감계도시개발지구(1779세대) 등 대전,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35.8% 증가했다. /김두탁기자 kimdt@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스마트폰 영상편지 제작법

가정의 달 감동 선물 1시간만 투자하면 ‘뚝딱’

‘가정의 달’ 5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돈 들어갈 일은 많으나 갈수록 얇아지는 지갑이 원망스럽기 때문이다. ‘선물은 돈’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영상 편지를 보내보면 어떨까.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으로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선물할 수 있다.

◆슬로모션으로 극적 효과

캠코더 등 전문장비가 없어도 그동안 가슴속에 품었던 이야기를 동영상 등으로 찍어 손쉽게 전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을 활용하면 된다. 이때 배경 등을 초당 120 프레임(720p)의 ‘슬로모션’으로 찍는다면 보다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셀프 동영상을 찍느라 초점을 맞추기 힘들다면 ‘카메라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편하다. iOS7가 설치된 두 개의 단말기를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연결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아이패드를 리모컨처럼 활용해 아이폰의 초점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필터를 적용해 촬영할 수 있다.

감동을 전하는 데는 컬러 보다 흑백이 유용하다. ‘8mm 빈티지 카메라’ 앱은 1930년대 거친 흑백 스타일이나 1960년대 바랜 느낌의 사진을 손쉽게 만들어 준다.

◆영상 편집도 아이폰으로 척척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PC에 옮길 필요없이 아이폰 등에서 바로 편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이무비’ 앱을 이용하면 새로 찍은 동영상·사진을 물론 기존의 것도 불러와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 앱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필요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배치만 하면 된다. 영상 안에 원하는 문구를 바로 넣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으로 까는 것도 터치 한 두번에 끝낼 수 있다. 아이무비의 ‘예고편’을 터치하면 가족이나 친구가 등장하는 할리우드 스타일의 멋진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두 개의 영상을 하나로 편집하는 것도 손쉽다. 예를들어 자녀가 뛰노는 동영상에 아버지의 고마움과 바람을 담은 영상을 겹치게 편집할 수 있다.

◆영상 편지 공유도 한번에

편집이 끝난 영상편지를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 특별하게 선물해볼까. 영상편지를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나 비메오에 올린 후 링크만 보내주거나 페이스북·트위터 등에 공유하면 된다. 특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공유를 제한할 수 있어 동영상 유출 등의 걱정도 없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선물한다면 공유스트림이나 ‘아이포토’ 앱의 웹저널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영상편지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 초대메시지만 보내면 바로 공유할 수 있다.

거실에 있는 대형TV로 영상편지를 보며 감동을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디지털AC 어댑터를 활용해 아이폰과 TV를 HDMI로 연결하면 더 큰 감동을 선물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얼굴만 대면 문이 열리네”

어버이날 선물용 첨단 IT기기 인기

어버이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부모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IT 제품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최근 효자·효녀로부터 부쩍 관심을 얻고 있는 제품이 얼굴인식 도어락이다. 이 분야에서 토종 기술로 대기업들과 싸우고 있는 파이브지티의 ‘페이스키’가 대표적인 브랜드다.

‘페이스키’는 화면을 바라보면 1초 이내에 얼굴을 인증한 후 출입할 수 있는 바이오 인식 장치다. 안경과 모자 착용 유무에 관계없이 주위가 어두워도 얼굴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준다.

얼굴이 곧 열쇠이기 때문에 열쇠나 카드, 비밀번호 등의 분실이나 복제의 우려가 없다. 게다가 외부인이 문 앞을 서성거리면 이를 촬영해 보관하기 때문에 범죄예방 효과도 있다.

부모님의 허리를 편하게 해주는 로봇청소기도 매력적이다. 유진로봇이 28일 출시한 2014년형 ‘아이클레보 라이트’는 가격도 기존 자사 제품 평균가의 30%이상 저렴한 20만원대다.

이 제품은 집안 구조와 환경에 따라 청소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청소모드를 탑재하고 있다.

얼굴이 열쇠인 ‘페이스키’는 부모님들이 열쇠나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파이브지티 제공

가구를 복잡하게 배치하는 한국 집안구조를 고려해 거리 측정과 센서를 통해 청소할 공간을 미리 확인해 좁고 복잡하거나 넓은 공간에서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를 한다.

바닥밀착형으로 설계해 18mm의 문턱을 넘나들며 물걸레 청소도 할 수 있다.

삼성이 최근 선보인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 그랜드2’는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어르신께 적합하다.

이 제품은 전작보다 6㎜ 더 커진 133.3㎜ 화면에 고화질(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더욱 시원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다. 영화나 게임 등의 멀티미디어 즐기기에 최적화된 16대 9 화면비의 ‘옵티멀 와이드 뷰’로 보는 즐거움까지 극대화했다. /박성훈기자 zen@

간판도 스마트시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이 ‘스마트간판’을 소개하고 있다. ETRI는 스마트폰에 부착한 레이저 빔을 간판에 쏘거나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상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간판 기술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TRI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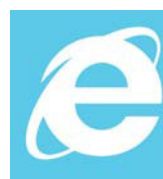
인터넷익스플로러 개인정보 유출 결함

유명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 빼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보안상 결함이 발견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 해커가 IE에서 유명한 웹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 정보를 탈취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MS는 이미 IE 6~11 버전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네트워크가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터넷 시장조사업체 넷마켓쉐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웹브라우저 사용자의 26.5%가 IE 6~11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MS는 아직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자체 조사가 끝나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MS는 해커가 다른 사람의 사용자 권한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보는 것은 물론 바꾸거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훈기자

초록색 치킨·갈색 빙수 '이색 푸드' 열전

보는 즐거움에 영양까지 담아 '인기'

최근 수 없이 많은 음식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자랑하며 쏟아져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독특한 조합의 음식부터 각종 과일과 신선 채소를 곁들인 참살이 음식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음식업계는 고객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주얼을 강화한 음식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맛과 건강뿐만 아니라 모양까지 생각하는 메뉴들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치킨 브랜드 BHC는 초록빛 치킨을 야심차게 선보였다. 치킨 제품 가운데 처음으로 선보인 이 치킨은 브랜드 이름도 별에서 온 초록 치킨이라는 뜻의 '별에서 온 코스 치킨(이하 별코치)'으로 붙였다.

코스식 치킨 별코치의 메인디시인 그린드레스치킨은 겉면에 시금치와 마늘·양파·스위트콘 등을 입혀 초록빛을 띤다. 시금치는 엽산과 비타민 A·C가 다량 함유돼 위장을 정화하고 빈혈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채소다. 초록색의 독특함 덕분인지 정식 출시 일주일이 갓 넘은 지금, 매장에서의 인기는 폭발적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귀띔했다.

일반적으로 파스타는 붉은색 아니면 흰색이라는 편견을 깬 외식업체도 있다. 올리앤은 회색빛과 보랏빛, 분홍빛 파스타를 내놓았다.

벚꽃 잎을 닮은 분홍색 파스타인 '로제 크림 씨푸드 파스타'는 신선한 해산물과 토마토크림소스의 조화로 생겨났다. 음식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여성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보라색 파스타는 비트로 색감을 냈다. 이 파스타는 파마산 치즈·베이컨과 비트·버섯·마늘·양파가 들어간 영양식 크림 파스타다. 비트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은 효능이 커서 적혈구 생성 및 혈액조절에 효과적이어서 빈혈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가장 독특한 회색 파스타는 '흑임자 파스타'로 파마산 치즈에 베이컨·흑임자·버섯·마늘 양파로 맛을 냈다. 흑임자는 항산화작용을 하는 토코페롤과 정력에 좋은 필수아미노산이 함유돼 있다.

카페베네가 지난달 출시한 '초코 악마빙수'는 오는 6월 브라질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만든 제품이다. 자체 개발한 진한 초코베이스 위에 초콜릿 쿠키와 브라우니를 가득 올려 진하고 부드러운 초콜릿 맛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크림치즈 젤라또에 달콤한 초콜릿 장식으로 축구공 모양을 구현했고, 악마 뿔 장식을 더해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더했다. 출시 보름 만에 10만개 판매를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세련미에 착화감도 '굿' 현대백화점그룹 패션전문기업 한섬의 여성복 브랜드 '에스제이에스제이(SJSJ)'는 28일 글레디에이터 샌들인 '메이트 스트랩 샌들'을 선보였다. 이 샌들은 자연스러운 소가죽의 질감을 살린 고급 소재에 우드힐을 더해 세련미와 착화감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한섬 제공

높아진 기온, 피부에는 치명타!

모공 넓어져 미세먼지 쌓이기 쉬워 '조심'

연휴를 앞두고 나들이를 준비하는 가족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피부 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모공이 확장되는 시기다. 이런 환경에 부쩍 심해진 미세먼지를 만난다면 피부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미세먼지는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로 머리카락 굵기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또 초미세먼지는 2.5㎛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약 30분의 1 정도 크기다. 즉 미세먼지의 크기는 0.02~0.05mm인 모공보다 10분의 1 이나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그대로 닿게 되면 먼저 미세먼지에 섞여 있는 유해물질로 인해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이 발생한다. 게다가 미세먼지 알갱이가 피부 모공을 막으면 피부 밖으로 나와야 할 피지가 배출되지 못해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피부 질환과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다.

또 먼지와 혼합된 노폐물이 쌓이면서 모공이 점점 더 넓어진다. 이렇게 넓어진 모공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고 노화를 촉진하거나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특히 피부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피부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피부에 존재하는 세균은 몸이 건강할 때는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저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염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부 질환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출할 때는 옷이나 모자, 마스크를 착용해 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얼굴이나 손과 같이 가리기가 힘든 부위는 보습제를 발라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야 한다. /황재용기자

'작지만 개성 살릴' 패션 눈길

'커스터마이징' 대세

남들과 똑같은 평범함을 거부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연출하려는 여성들에게 요즘 커스터마이징 제품이 인기다. 커스터마이징은 한가지 제품이지만 다양한 소품을 가미해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액세서리·신발 등 다양한 품목 군에서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스타럭스가 성공적으로 국내에 안착시킨 프랑스 젤리슈즈 브랜드 뽀빠피리가 화제다. 이 젤리슈즈는 트렌드에 민감한 여성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자 탈·부착이 가능한 리본·하트·단추 등의 다양한 잼스를 준비했다. 이 잼스를 이용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이 담긴 독특한 슈즈를 만들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인 아가타 파리(사진)는 '나만의 팔찌'로 유명한 아가츄 컬렉션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 컬렉션은 가죽·실리콘 등 다양한 소재의 팔찌에 원하는 참을 슬라이드로 끼워 자신의 취향과 그 날 기분에 따라 다른 팔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김학철기자

반바지에 어울리는 슈즈는?

튀지 않는 로퍼에 스니커즈·샌들로 멋내기

올 여름 '캐주얼 데이' '반바지 데이' 등 간편한 차림의 오피스룩을 권장하는 직장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반바지 스타일링과 그에 어울리는 신발을 선택하면 부담없이 반바지를 입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오피스룩이나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반바지를 입되 단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의는 긴 소매 셔츠를 접어 입거나 가벼운 소재의 재킷을 걸쳐 입고, 튀지 않는 모노톤에 포인트 컬러로 단조로움을 없애는 게 좋다. 이와 함께 신발은 브라운이나 네이비 톤의 로퍼를 신으면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반바지에 양말을 매치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오피스룩이지만 캐주얼룩을 연출하려면 스니커즈와 포인트 양말을 신는 것이 좋다. 무릎을 덮지 않는 적당한 길이의 반바지에 패턴이 화려한 양말을 포인트로 매치하고 편안한 스트리트 감성의 티셔츠를 입으면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과감한 스타일에 도전하고 싶다면 독특한 디자인의 샌들과 반바지를 함께 매치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발목까지 올라오는 스트랩 샌들은 긴 바지와 매치하면 바지 밑단 부분이 부딪히기 때문에 반바지와 연출하는 것이 더 편하게 매력을 뽐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만찬

그랜드 힐튼 서울, '위클리 스페셜 메뉴' 진행

그랜드 힐튼 서울이 에이트리움 카페에서 한 주 동안 매일 다른 메뉴를 선보여 고객이 골라 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위클리 스페셜 메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월요일에는 샐러드·파스타·피자 등으로 구성된 '이탈리안 이브닝'이 마련된다.

화요일에는 미고랭·팟타이·한우 채끝 등심 데리야키 등 아시아 국가의 대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아시아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또 수요일에는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메뉴로 이뤄진 '해산물 특선'이 차려지며 목요일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카레 라이스 데이' 행사를 준비했다.

이와 함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호주산 안심스테이크, 미국산 립아이 스테이크, 한우스테이크 등 다양하고 질 좋은 육류가 준비되는 '스테이크 나이트'가 펼쳐진다.

프로모션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30분까지 이어진다.

가격(세금·봉사료 포함)은 2만8000원~9만5000원까지다. 문의: 02)2287-8270 /황재용기자

털털하고 까칠한 여자, 안돼요~

G마켓, 초여름 날씨에 셀프케어 용품 인기

한낮 기온이 27도를 웃돌며 핫팬츠나 민소매 등의 여름 패션이 일찍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출 패션이 일찍 인기를 끌면서 제모용품 등 털 관리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최근 한 달 동안 제모용품 판매량이 전월 대비 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붙였다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타입의 왁싱·패치는 같은 기간 46% 증가했고, 털을 녹여 전용 면도기로 밀어내는 제모크림은 158% 급증했다.

모근 제거기 판매도 같은 기간 45% 늘었다. 빠르게 털을 제거하는 면도기의 특징과 족집게로 모근까지 뽑는 특성이 결합돼 털 제거가 용이하다. 코털이나 눈썹 제거용 잔털정리기도 전월 대비 19% 판매량이 증가했다.

또 샌들·오픈토 힐과 같은 여름철 신발이 나오면서 맨발 관리에 나선 사람도 많아졌다. 이 때문에 같은 기간 각질제거기 판매량은 5% 증가했고, 손발톱정리기는 873% 급증했다.

G마켓에서는 이색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리얼스밴드'(9000원)는 발가락이 겹쳐지는 부분에 끼워 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튜브형 밴드다. 발의 온도를 낮춰 발 냄새를 예방할 수 있다. '발라손 제모각질패드'(3만6290원)는 마이크로 사이즈 소재를 적용해 약품이나 칼날 없이 마찰만으로 제모와 각질 제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다.

G마켓 관계자는 "최근 이상 고온으로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셀프케어를 통해 노출 패션에 대비하는 사람들이 벌써 증가하고 있다"며 "제모용품이나 각질관리 제품은 매년 여름 베스트셀러인데 긴 여름이 예보되면서 올해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prms@

강강술래 "한우 오늘 주문하고 오늘 받자"

정육쇼핑몰 업계 최초 '당일배송' 실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평일 오후 2시 이전에 양념육이나 가공식품(곰탕·육포·떡갈비 등)을 '당일배송' 서비스로 신청하면 그날 오후 9시 이전에 제품을 배송해주는 당일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단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만 가능)

또 29일 오후 2시까지 쇼핑몰 '스피드 경품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오후 4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1명) 선정 후 '한우불고기 선물세트(1호)'를 9시까지 당일 배송해준다. 5월 2일까지 당일배송을 이용하는 고객에겐 부담금(1900원)을 받지 않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4월 30일과 5월 1일은 제외·배송 가능지역 확인).

쇼핑몰과 전화 주문, 전 매장을 통해선 야외 나들이나 캠핑 등에서 즐길 수 있는 가정간편식 30%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국내산 돼지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자연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할인 판매한다.

국산 돼지고기 70%에 흑임자를 접목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2만5200원)와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칠칠한 우떡갈비'(360g×3박스·4만2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2만5800원)도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정영일기자

르네상스 서울 호텔 어린이날 이벤트 변경

메트로신문 4월 25일자 패밀리특별판에 게재된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어린이날 이벤트 가운데 '뽀롱뽀롱 뽀로로' 이벤트는 호텔 측의 내부 사정으로 다른 이벤트로 대체 될 계획입니다.

R-kid's package 및 포토타임, 어린이 쿠킹클래스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02-555-0501

비핸즈카드 제공 (제품번호:BH2137)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랭키닷컴-랭키순위란? 최근 12주간 랭키 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온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여행용 파우치, 똑소리 나게 챙기자

멀티·미니 사이즈 등 제품 위주로 가볍게 준비

5월 황금연휴에는 효율적인 짐을 꾸리기 위한 노하우가 중요하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여행지에서도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각종 뷰티 제품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데 관심이 높다.

◆평소 쓰는 제품 작은 사이즈로

스킨케어 제품의 경우 대부분 사이즈가 커 파우치 부피를 많이 차지하므로 미니 사이즈의 제품이나 샘플 위주로 챙겨야 한다.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 샘플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공병에 덜어 가져가는 것이 좋다. 단 공병을 사용할 경우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 알코올로 깨끗하게 소독한 후 화장품을 담는 것이 좋다.

폴라초이스의 '퍼스트 클래스 리필러블 트래블 키트'는 여행 시 피부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을 휴대할 수 있도록 고안된 키트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규격으로 케이스부터 용기·스패츌러·깔때기 등이 포함돼 평소 사용하는 제품을 간편하게 담아갈 수 있다.

야외 활동이 대부분인 여행지에서 꼼꼼하게 발라야 하는 자외선 차단제는 일반 보습제에 비해 강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대로 닦아내지 않으면 피부 표면에 그대로 남아 여드름, 색소 침착 등 피부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제품으로 여러 번 세안하기보다는 세정과 동시에 스킨케어 효과까지 주는 선 클렌징 전용 아이템을 챙기면 편리하다.

아토팜의 '선 클린 티슈'는 자외선 차단제를 닦기 위한 선 클렌징 전용 티슈다. 세정성분 대신 글리세린이 함유돼 세정과 동시에 보습이 가능하며 티슈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안이 필요 없어 여행 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용도의 멀티 제품 유용

여행지에서도 메이크업을 빼놓을 수 없다면 멀티 제품이나 올인원 제품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브러시와 거울이 함께 있는 치크 겸용 립 제품을 이용하면 파우치 부피를 줄일 수 있고 크레용 타입의 아이섀도 또는 아이섀도 브러시를 줄여주는데다가 아이라이너로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여러 가지 제품 및 컬러가 하나로 구성된 팔레트 형식의 제품은 파우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 중 메이크업을 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도와준다.

애경의 색조 전문 메이크업 브랜드 루나(LUNA)의 '시크릿 걸'은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으로 구성된 팔레트 북이다. 비비 파운데이션과 펜슬라이너, 아이컬러 4색, 립글로즈 2색 등 베이스부터 립, 아이 색조 제품까지 함께 담겨 있어 손쉽고 간편하게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여행 중에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피부가 붉어지거나 예민해지기 쉽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각질이나 자외선 때문에 푸석해진 머리카락, 벌레에 물리는 등 각종 피부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가 용이하고 진정 효과, 보습 효과가 우수한 멀티 밤 제품을 챙겨 피부트러블에 대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다.

'아토팜 MLE 멀티 밤'은 부스스한 머리카락 끝, 손·발톱 큐티클, 발뒤꿈치 등 전신 모두 사용 가능한 멀티 밤으로 휴대가 간편해 여행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국제 특허 피부장벽기술 'MLE'가 적용됐으며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가 함유돼 건조함과 외부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준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그루밍족 기능·타입별 '팩' 선호

모공 관리·피지 조절…화이트닝도 관심

외모를 가꾸는 남성들, 즉 '그루밍 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영국 시장조사 기업 유로모니터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남성 화장품 시장 매출은 5억6500만 달러로 세계 1위(21%)를 차지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남성 1인당 사용 화장품 개수가 2.3개로 집계됐다. 스킨만 바르던 남성들이 로션·에센스·팩 등의 기초 화장품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루밍족은 여성에 비해 모공이 넓고 피지 분비는 약 3배 많은 남성 특성 상 모공 관리 및 피지 조절에 관심이 많다. 번들거리는 피부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나 노폐물이 들러붙어 모공을 막을 경우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 관리가 필요하다. 이럴 땐 달걀팩을 하면 좋은데 달걀흰자로 거품을 내어 5~10분 동안 얼굴에 올려놓았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된다.

이런방법이 번거로운 남성들은 빅토리아 코리아 '스웨덴 에그팩-라놀린&로즈워터(지복합성용)'가 도움이 된다.

또 2011년 한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가 여성 1176명을 상대로 '내가 원하는 남친의 피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까칠한 여드름 피부'(61%),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20%), '탄력없고 주름진 피부'(19%) 순으로 싫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이트닝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토니모리 'G9 올인원 파워 시트 마스크'는 순면 시트 마스크로 진주 가루와 마돈나백합 꽃추출물, 목련꽃추출물이 피부를 환하게 가꿔주고 외부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돼 자극 받은 남성 피부를 진정시킨다.

피부 층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꺼운 남성도 수분 막을 형성해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 막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피부 속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다.

귀가 후 클렌징, 보습 등 기초 케어를 한 다음 수분 크림을 두껍게 바르고 자거나 건조함이 심할 경우 슬리핑 팩을 바르는 것이 좋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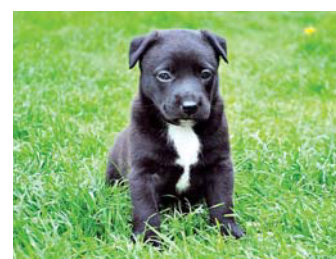
맛난 메뉴를 한번에 도미노피자(대표 오광현)가 자사의 인기 메뉴를 엄선해 경제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도미노 올스타팩'을 29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2단으로 구성된 박스에 올스타를 연상하는 별 모양의 패키지가 눈길을 끄는 제품이다. 베스트셀러 피자 2판과 인기 사이드디쉬 4종을 하나의 박스에 풍성하게 담았다. 가격은 정상가에서 34% 할인된 3만5900원. /도미노피자 제공

반려견과 여행, 교통 탑승규정 등 확인을

증빙 서류·케이지 등 준비 필수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가까운 교외부터 해외까지 반려견과 함께 하는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특히 반려견과 함께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필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 교외 여행을 즐길 땐 애견 리드줄과 케이지만 준비하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기차를 이용할 땐 케이지를 활용하되 케이지 겉포장을 해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시외 및 고속버스의 경우 운송사마다 반려견 탑승에 대한 규제가 다를 수 있으니 출발 전 체크도 필요하다. 특히 다른 탑승객들을 위해 오물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위해 국제선 탑승을 계획하고 있다면 경유지 국가의 검역제도 등에 따라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국가별 필요서류 및 예방접종 기간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다. 반려견 비행기 탑승에 필요한 해외여행 서류준비 기간이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되므로 출국 전 미리서류 준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여행에 비해 국내선은 절차가 간소화 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려견의 건강상태 확인과 케이지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며 항공사별로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를 제출하면 탑승 가능하다. 이때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항공사를 통해 예약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이른 더위에 메쉬 침구 등 불티

텐트용 모기장·퇴치용품 등 온·오프라인 매장 매출 급증

4월 들어 낮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5도 높은 20도를 기록한 가운데 벌써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름 용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예년에 비해 이르게는 한 달 일찍 여름 용품 행사가 시작된 것이다.

먼저 이마트는 오는 28일부터 여름용 침구인 '아이스 3D 메쉬 침구'를 선보였다. 이는 예년보다 2주가량 앞당겨 판매하는 것이다.

특히 이마트 측은 최근 몇 년간 이상고온 현상 탓에 여름이 길면서 동시에 더워져 기능성 시즌상품 시장 전체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습기·열 차단용 에어캡·쿨 스카프·쿨 토시 등 예년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상품이 여름 필수 상품으로 등극한 것처럼 침구 시장에도 여름을 대비해 냉감을 느낄 수 있는 시즌 침구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여름 시즌침구 판매가 시작되는 5월부터 8월까지 이마트 침구 매출을 보면 지난해 시즌침구 매출비중은 18.8%로 여름용 기능성 소재가 주목받기 시작한 2010년 보다 4배 이상 대폭 늘었다.

이번에 이마트가 선보이는 아이스 3D 메쉬 침구는 중소협력사 동진침장과 함께 사전기획으로 2만5000세트를 준비해 베개와 패드를 5만9000원에 판매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방석은 6900원에 판매한다.

이 제품은 1초/1㎡ 당 4.8ℓ의 공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입체 그물망 구조의 '3D 에어 메쉬 원단'을 사용해 통기성을 높여 사용자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냉감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

온라인마켓인 옥션에선 벌써부터 모기퇴치용품 등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옥션이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모기와 해충 등의 퇴치용품 매출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했다. 모기퇴치 팔찌와 텐트형 모기장 등 야외활동용 해충퇴치용품도 같은 기간 140%나 늘어났다. 계절 특수 상품인 휴대용 보냉 물병, 여름간식 제조기 등 여름철 생활용품도 30% 증가했다.

김은신 옥션 생활주방팀장은 "높은 낮 기온으로 모기·날벌레가 예년에 비해 일찍 출현하고 부산 지역에서는 빨간집모기가 발견되는 등 고온현상에 따른 여름상품 판매시점이 한 달 정도 빨라졌다"며 "특히 올해는 기존의 일반 모기장에서 캐릭터와 무늬장식 등 다양한 디자인이 추가된 신제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어린이용 홍삼제품 홈플러스는 오는 30일부터 홍삼전문 브랜드인 천지인과 공동 개발한 어린이 전용 홍삼 건강기능 식품 '키즐홍짱 홍삼액'을 판매한다. 이 제품은 시중 유사 사양의 제품보다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국내산 사과 농축액과 녹용 농축액, 비타민 12종이 함유돼 있다. 가격은 4만9000원. /홈플러스 제공

BEST 커피전문점은?

대학생, 스타벅스·이디야·투썸플레이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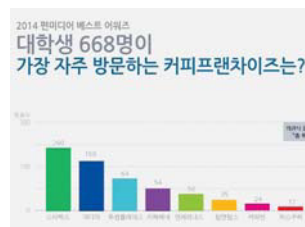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커피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커피 전문점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특히 대학가 인근의 커피 전문점들은 데이트나 취업스터디, 시험 공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대학생들에게 하나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커피 프랜차이즈는 어디일까?

다양한 커피전문점에 대한 대학생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20대 참여형 미디어 편미디어와 대학생&취업 커뮤니티 스펙업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3월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총 668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한 설문 결과 커피 프랜차이즈 가운데 스타벅스와 이디야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투썸플레이스는 3위였다.

'가장 자주 방문하는 커피 프랜차이즈는?'에 스타벅스는 전체 응답자의 38.9%인 260표를, 이디야는 23.8%인 159표를 각각 얻었다.

스타벅스 선호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여럿 카페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매장마다 분위기가 상이한 경우가 많지만 스타벅스는 어느 지점을 가도 같은 분위기 같은 맛 같은 서비스를 느낀다", "대학생이라, 아무래도 카페에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스타벅스만의 음악 센스라든지 접근성 등이 마음에 들어 선호하는 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카페 선정 기준은?'에서는 분위기(인테리어와 조용함, 의자가 편해서 등)가 316표(26.73%)로 1위를, 맛이 278표로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가격, 접근성, 와이파이가 잘 잡혀서, 적립·할인율이 높아서 등의 응답이 나왔다. 대학생들에게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모임 공간이나 과제를 하기 위한 '스터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탁자가 넓고 의자가 편해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이라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영일기자

여성, 다양한 셔츠로 매력 발산

평상복·비지니스룩 제격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평범한 셔츠가 이번 시즌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컬렉션을 통해 잇달아 선보이며 환절기 여성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엔 기본적인 화이트 셔츠부터 허리가 드러나는 크롭트 스타일, 언밸런스 커팅 셔츠 등 전체적인 윤곽에 변화를 준 디자인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CJ 오쇼핑 관계자는 "셔츠는 다양한 장소에서 매력을 뽐낼 수 있는 봄 아이템으로 이번 시즌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격식있는 자리나 미팅에선 목까지 단추를 잠궈 단정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으며 친구와의 약속, 저녁 모임에선 단추를 과감히 풀어 섹시한 여성미를 뽐낼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몸에 꼭 끼는 핏보다는 여유감이 있는 옷과 고급스러운 모노톤, 청량한 블루 계열의 제품이 세련된 느낌을 주며 각광받을 전망이다.

디자인에서는 지름 1㎝ 정도의 물방울 무늬나 줄무늬 등의 작은 패턴 셔츠부터 주름(플리츠)·뜨개질(크로쉐) 등의 디테일로 우아함을 살린 셔츠까지 비즈니스 룩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기본 셔츠에 핀턱 팬츠나 펜슬 스커트로 오피스룩을 연출했다면 색이 선명한 립스틱이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다. 아울러 엉덩이를 덮는 긴 셔츠라면 레깅스와 단화를 함께 매치해 편안한 캐주얼 룩을 연출할 수도 있다.

활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화이트 셔츠와 티셔츠를 함께 입고 더울 땐 허리에 묶거나 어깨에 둘러 세련된 분위기를 더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스톤헨지, 신제품 출시 5월 이벤트

주얼리 브랜드 스톤헨지는 5월을 맞아 신제품 출시와 함께 한 달간 선물 증정 이벤트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6종의 클래식 브로치로 브라스 소재에 화이트 큐빅이 가미됐다. 특히 레이스를 모티브로 한 브로치는 가공이 많지 않은 담수진주를 사용해 우아함을 강조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이 브랜드는 5월 한 달 동안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카드지갑을 증정한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성년의 날을 맞은 고객에게 20% 할인을, 21일까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해 주얼리 세트 구매 시 10% 할인하는 이벤트를 벌인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metro entertainment

'1000만 배우'의 새로운 도전

'원톱' 배우 확고히 하는 시험대
액션 배우로 영역 넓히는 계기
'7번방…' 이어 5연타 흥행 노려

영화 '표적' 주연 류승룡

충무로의 흥행 보증 수표로 떠오른 류승룡(44)이 '중년 액션'을 앞세워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광해, 왕이 된 남자'와 '7번방의 선물'로 '1000만 배우' 반열에 오른 류승룡은 첫 액션영화 '표적'을 30일 관객 앞에 선보인다.

이번 영화의 성공은 류승룡에게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설경구·송강호·김윤석과 같이 '롱런'하는 '원톱' 주연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험대와 같기 때문이다.

류승룡은 주연급으로 출연했던 '최종병기 활' '광해, 왕이 된 남자' '내 아내의 모든 것'을 줄줄히 히트시켰지만 원톱 주연은 전작인 '7번방의 선물'이 첫 작품이었다.

또 '표적'은 류승룡이 액션 배우로도 손색없다는 것을 증명할 영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매 작품마다 색다른 캐릭터를 선보이긴 했지만 하정우·원빈 등 주로 젊은 배우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액션 영화에 출연한 것은 의외의 선택이었다.

또 이번 영화로 5연타 흥행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 모든 성공의 관건은 류승룡의 액션이 관객에게 통하느냐의 여부다.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전망이 밝은 편이다. 그의 액션 도전은 시사회 전까지만 해도 우려를 샀으나 시사회 후 기대 이상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영화가 다음달 개막할 제67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공식 초청돼 더욱 힘을 얻었다.

'표적' 출연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작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장르였다"면서 "그동안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중년 액션의 향연 감상 작품

film review

/탁진현기자

■ 표적

30일 개봉할 '표적'은 류승룡표 중년 액션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영화다.

'표적'은 살인누명을 쓰고 쫓기는 용병 출신 여훈(류승룡)과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와 동행하게 된 의사 태준(이진욱), 그리고 이들을 쫓는 형사들의 추격전을 그렸다. 2010년 개봉한 프랑스 액션 영화 '포인트 블랭크'를 한국적인 정서를 가미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로 각색했다.

빠른 사건 전개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감으로 호평받은 원작의 장점은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여훈이 칼을 맞고 병원에 실려왔다가 탈출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형사들과 추격전을 벌이고 강도 높은 액션 대결을 펼치는 장면들이 빠르고 긴박하게 펼쳐져 관객에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시나리오 자체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사건의 앞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여훈과 대립하는 송반장 캐릭터가 설득력 있게 그려지지 않아 공감하기 어렵다. 원작을 각색하면서 이 부분도 수정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긴박감 넘치는 오락영화
시나리오 완성도는 미흡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하는 건 배우의 힘이다. 류승룡은 마치 영화 '테이큰' 시리즈의 리암 니슨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맨몸 액션을 날렵하게 펼쳐보이며 '1000만 배우'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낸다. 화려하진 않지만 인생의 무게를 담은 듯한 묵직한 액션이 매력이다.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의 카사노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허균, '7번 방의 선물'의 바보 아빠 등 그동안 보여준 친근한 이미지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거칠면서도 고독한 눈빛과 표정으로 진한 남자의 냄새를 풍긴다.

류승룡 뿐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의사를 연기한 이진욱, 이중적인 부패 경찰 송반장 역의 유준상, 여훈의 동생이자 틱 장애를 가진 성훈 역의 진구, 형사로 변신한 김성령과 조은지, 태준의 아내 희주 역의 조여정 등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모여 각자 제 몫을 해냈다. 15세 이상 관람가.

tvN
회춘누아르
꽃할배
수사대
평균나이 70 29세
짱짱맨 할배들이 떴다!
매주 금 밤 9시 50분 · 5월 9일 tvN 첫 방송
연출 김진영 극본 문선희, 유남경 기획 tvN 제작 SSD
이순재. 변희봉. 장광. 김희철. 이초희. 김응수. 박은지

두 얼굴의 '빅맨' 강지환

양아치 vs 재벌…체중부터 대사까지 변신 시도

KBS2 새 월화극 '빅맨'의 강지환(사진)이 두 얼굴의 사나이로 변신한다.

극중 김지혁으로 분한 그는 양아치에서 재벌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된다. 서로 다른 환경과 입장을 연기하기 위해 외모부터 대사 처리까지 변화를 줬다.

강지환은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기 톤에 주안점을 뒀다. 지상파에선 볼 수 없는 대사 처리일 수도 있어서 질타를 받을 지 모르겠다"며 "대본에 써있는 '습니다' '습니까' 같은 대사를 일상용어로 바꿔서 연기 했다. 일부러 뭉개서 발음하기도 했다"고 강지환표 생활 연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극 초반 시장에서 굴러다닌 양아치 역을 위해 4~5kg을 찌웠다"고 외적 변신을 설명하며 "그러나 갑자기 대기업에 취직한다고 해서 그들과 융화될 수는 없다. 양아치 특유의 머리스타일과 시장 양복 같은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코믹 연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다운 건 재벌"이라고 농담을 던지며 "연기할 때는 갖출 게 없다 보니 양아치 역할이 편하다. 재벌이 된 김지혁을 위해 다시 체중 감량을 했다. 전작인 영화 '차형사'에서 15kg을 뺐다가 찌워봤다. 그나마 이번엔 수월했지만 재벌 역할은 다듬을 게 많아 여전히 신경이 쓰인다"고 역할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빅맨'과 맞붙는 SBS 새 월화극 '닥터 이방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지환은 "'닥터 이방인'에는 이종석·박해진 등 대세 배우들이 출연한다.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겠지만 '빅맨'은 구성과 내용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작품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난 가족이 필요했고 그들은 내 심장이 필요했다'라는 작품을 관통하는 글귀는 그의 출연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현재 6회를 찍고 있다.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의 강렬함이 심화되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기대된다"고 '빅맨'에 대한 설렘을 표현했다.

드라마는 외로운 양아치 김지혁에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가왔지만 그 이면에는 김지혁의 건강한 심장을 노리는 한 재벌가의 음모와 김지혁의 복수를 그린다.

이에 강지환은 "복수의 대상에 따라 연기의 방향도 달라진다"며 "'빅맨'은 가족이나 연인의 원수를 갚기 위한 복수가 아닌 내 심장, 즉 목숨을 가지고 음모를 펼치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다"라고 일반적인 복수극과 '빅맨'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그는 "시장판에 있던 양아치가 한 조직을 아우르는 경제적 리더가 된다. '빅맨'을 통해서 리더의 힘은 재능이나 지식에서도 나오지만 인간성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보여준다"고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달 28일 첫 방송.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보면 안다" 개성 작가 시대

'감성' 문희정…'추리' 김은희 인기 반열에

드라마 전개와 주인공의 대사만으로도 제작진을 짐작하게 하는 개성 있는 작가의 활약이 눈에 띈다.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의 문희정은 가족드라마를 대표하며, 수목극 '쓰리데이즈' 김은희는 추리·스릴러 장르에 일가견이 있는 작가다. 소재 우려먹기라는 인식이 있긴 하나 전문성 강화로 질 높은 작품을 선보인다는 강점이 두 사람을 인기 작가 반열에 올려놓았다.

지난 26일 첫 방송된 '기분 좋은 날'은 사랑과 결혼, 가족의 참된 의미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드라마로 막장과 불륜, 출생의 비밀이 없는 착한 작품을 표방한다.

코믹하고 발랄한 대사와 남녀 주인공 이상우·박세영 가정을 둘러싸고 얽힌 인간관계, 최불암·강석우의 익숙한 투 샷은 SBS 주말극 '그대 웃어요'(2009)로 큰 화제가 된 문희정 작가를 짐작하게 한다.

작품의 묘미는 살아있는 캐릭터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이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다르다. '그대 웃어요' 속 이민정·정경호의 코믹연기는 배우의 재발견이었다. 이상우와 박세영의 연기 변신은 방송 2회 만에 화제가 되고 있어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그대 웃어요'에서 티격태격 우정을 쌓은 이민정 아빠 강석우와 정경호 조부 최불암은 '기분 좋은 날'에서 사위와 장인으로 등장한다. 전작이 그러했듯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쓰리데이즈'의 김 작가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대표 스타 작가다. 수목극 전체 시청률이 30%가 되지 않는 접전 상황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데에는 작가의 필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섬세함과 굵직함이 동시에 녹아 있어 드라마 '싸인' '유령' 등을 통해 한국형 장르물의 1인자로 불리며 마니아 층을 두텁게 형성하고 있다. '쓰리데이즈'는 전작에 비해 엉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빠른 전개와 범인을 미리 알려주고 사건을 추리하는 김은희식 스토리 구성으로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89@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

월화 안방 '남 vs 남 vs 남'

'트라이…' 김재중·'닥터…' 이종석 방송 3사 여인천하 끝내고 새판짜기

'트라이앵글' 김재중

'트라이앵글' 임시완

다음달 월화 안방극장에 남자 배우들의 대결이 펼쳐진다.

28일 KBS2 '빅맨'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 나란히 첫 선을 보이는 SBS '닥터 이방인', MBC '트라이앵글' 등 세 월화드라마 모두 주인공을 남자배우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전작 '신의 선물-14일'과 '기황후'를 이보영과 하지원 등 안방극장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는 30대 여배우들이 이끌었다면 후속작 '닥터 이방인'과 '트라이앵글'은 20대 남자배우들이 나설 예정이다.

앞서 방영 내내 평균 시청률 25%대(닐슨코리아 집계 기준, 이하 동일)를 유지하며 월화극 1위 자리를 지켜왔던 '기황후'의 인기를 '트라이앵글'이 이어받을 것인지 아니면 타사 '닥터이방인' 혹은 '빅맨'이 꿰찰 것인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세 명의 남자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트라이앵글'은 어린 시절 뿔뿔이 흩어진 삼형제가 성인이 된 후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멜로드라마다.

극중 이범수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광역수사대 강력 형사 장동수 역을 맡았으며 김재중은 강원도 카지노판의 양아치 허영달 역을, 임시완은 재벌가 후계자 윤양하 역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각에선 김재중과 임시완 등 아이돌 출신 배우의 연기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재중은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 '닥터 진', 영화 '자칼이 온다' 등을 통해 꾸준히 연기력을 쌓아 왔으며 임시완은 드라마 '미생 프리퀄', 영화 '변호인' 등을 통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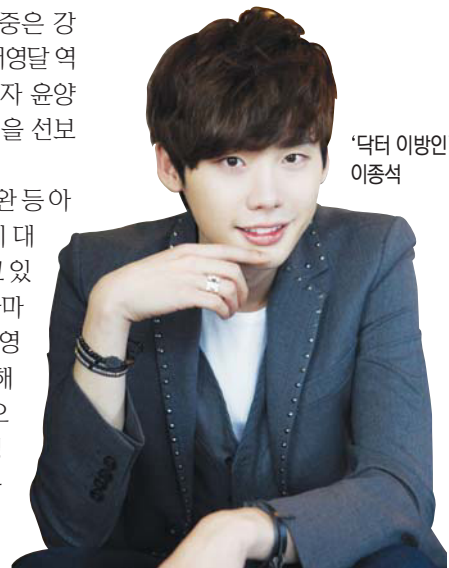
여기에 이범수·오연수 등 중견 배우들이 탄탄하게 뒷받침 하고 있어 배우들의 조화만 잘 이뤄진다면 흥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닥터 이방인'에는 지난해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이종석과 최근 '별에서 온 그대'의 박해진 등 검증된 흥행 배우들이 등장한다. 지난해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호흡을 맞춘 이보영과 이종석이 연이어 월화극 주인공을 맡아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종석이 이보영의 '신의 선물-14일'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닥터 이방인'에서 이종석은 북한 출신의 천재적인 흉부외과의사 박훈 역을 맡았으며 박해진은 하버드의대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의사 한재준을 연기한다.

/김지민기자 langkim@

'닥터 이방인' 이종석

리오2

‘제2의 겨울왕국’ 노린다

5월 극장 가족관객 겨냥 애니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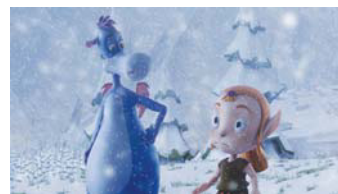
몬스터 왕국

한국과 미국의 대작 영화가 속속 개봉하는 가운데 애니메이션마저 쏟아져 극장가가 더욱 활기가 넘친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애니메이션이 잇따라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넘은 ‘겨울왕국’의 흥행에 도전한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다음달 1일 개봉할 3D 애니메이션 ‘리오 2’다. 2011년 전 세계적으로 4억 8500만 달러라는 큰 성공을 거둔 흥행작 ‘리오’의 속편이다. 임시완·써니·류승룡 등 인기스타들이 더빙을 맡아 더욱 화제다. 도시에 사는 앵무새 블루 가족이 아마존 정글로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이다.

같은날 선보일 ‘드래곤 기사단’은 ‘겨울왕국’에서 활약했던 성우 윤세웅을 비롯해 실력파 전문 성우진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위기에 처한 드래곤 왕국을 구하기 위한 전설의 드래곤 기사들의 활약이 줄거리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선보일 ‘몬스터 왕국’은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문에 진출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개그맨 김준호가 몬스터 배역 더빙과 내래이션 1인2역을 맡았다. 겁없는 토끼가 몬스터에게 납치된 엄마를 구출하는 대작전을 그린다.

이달 24일 먼저 공개된 ‘천재강아지 미스터 피바디’는 ‘슈렉’ ‘쿵푸팬더’로 유명한 드림웍스의 신작이다. IQ 800의 천재 강아지 미스터 피바디의 시간 여행담을 그렸다. 현재 할리우드 대작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 중이지만 누적 관객 수는 13만 5991명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드래곤 기사단

애니메이션은 이전에도 매년 5월마다 가족 관객을 겨냥해 개봉했지만 크게 흥행한 사례는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겨울왕국’의 흥행을 계기로 여느 때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배두나 5월의 배우 선정

무비꼴라쥬 대표작 상영

CGV의 다양성 영화 브랜드 무비꼴라쥬가 배두나를 5월의 배우로 선정하고 그의 대표작 5편을 상영한다.

다음달 개봉을 앞둔 작품으로 올해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선정된 ‘도희’를 비롯해 양궁 선수 남주 역을 연기한 봉준호 감독의 ‘괴물’, 선천성 청각 장애인의 연인 영미로 출연한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이 상영된다.

또 복제인간 역을 맡았던 할리우드 진출작 ‘클라우드 아틀라스’와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호흡을 맞춘 ‘공기인형’ 등 해외 거장과 작업한 영화도 상영된다.

다음달 8~14일 CGV압구정, 15~21일 CGV상암, 22~28일 CGV서면에서 상영된다. 14일에는 ‘도희야’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열린다. /유순호기자 suno@

‘동건표’ 액션은 이런 것!

‘우는 남자’서 카리스마 킬러로 변신

영화 ‘우는 남자’에서 킬러로 변신한 장동건(사진)이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냈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극중 냉혈한 킬러 곤 역을 맡은 장동건이 총을 쥔 모습이 담긴 사진을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 장동건은 손등의 화려한 문신과 서늘한 눈빛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우는 남자’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던 곤이 조직의 마지막 명령으로 목표물인 모경을 만나고, 임무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벌어지는 액션 드라마로 6월 개봉한다.

이번 배역을 위해 장동건은 촬영 전 5개월에 걸쳐 액션 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 액션은 직접 미국에서 특수부대 교관들과 총격 훈련을 하며 체득했다.

또 냉정한 킬러이지만 자신의 일에 회의감에 빠진 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장동건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는 역할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이기에 곤에게 더욱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정범 감독은 “처음부터 장동건이었다. (곤을 연기하는 배우가) 선이 굵으면서 내면은 부드럽고 유약한 사람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장동건이야 말로 적역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탁진현기자

한일합작 음악법인 설립

CJ 빅터 한류 새 활로 구축

CJ E&M 음악사업부문 안석준 대표(오른쪽)와 일본 빅터 엔터테인먼트 요네미츠 노부히코 부사장

한국의 대형 음악 기업이 최초로 일본에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한국의 CJ E&M과 일본의 빅터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터)는 50억원씩 출자한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합작 회사 CJ빅터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아시아 음악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CJ E&M과 빅터는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나눠 가지며 K-팝과 J-팝이 힘을 모아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CJ빅터는 한국 가수를 일본에 진출시키고, CJ E&M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가수를 해외에 선보이며, 두 회사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결합해 아시아에서 통할 새로운 아티스트를 육성할 계획이다.

CJ E&M 음악사업부문 안석준 대표는 “음반 및 공연, 초상권, MD(머천다이즈·상품) 등의 권리를 일본 파트너에게 귀속하고 로열티만 받던 기존의 일본 진출 방식과 달리 수익성과 사업 속도, 효율성에서 효과적인 해외 진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빅터는 영상·음향·가전 회사로 잘 알려진 JVC 켄우드의 자회사로 23개의 레이블을 보유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말 안 듣는 소비자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앱 중 하나는 '해외배송가이드'다. 이는 해외 쇼핑을 할 경우 주문상품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해외쇼핑몰의 각종 할인정보와 할인코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관세, 고시환율, 통관진행 절차, 항공조회 등 해외구매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니 소비자 만족도는 매우 높다.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을 소 닭 보듯 하는 소비자 덕분이다.

브라이언 케발로(Brian Ceballo)는 평범한 청년이다. 이 청년은 2주 동안 뉴욕 애플 매장 앞에서 대기하며 아이폰5S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됐을 뿐이다. 이 장면은 세계의 뉴스 채널에 방영됐고 아이폰5S에 대한 증권가와 미디어들의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인기를 여실히 보여준 증거가 됐다. 뉴발란스가 내놓은 벚꽃을 컨셉으로 한 운동화 '999 체리블라섬'의 판매개시 때도 비슷한 풍경이었다.

Olive TV에서 방영 중인 '맛있는 19'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19가지 신개념 푸드를 소개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음식을 보면 상식과는 다른 오묘한 조합의 조리가 기본(?)이다. 식제품을 제공받는 대로 소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맛을 모디파이(Modify)하고 이것을 새로운 레시피로 공유하는 유행을 잘 살린 듯 하다. 그 본격적 시작이 '짜파구리'라는 주장도 있다.

소비자의 이런 행동을 '미친 7살'이라고 부른다. 부모의 말을 무작정 거부하고 안 듣는 7살의 아이처럼 기업이나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솔루션을 무작정 거부하고 자신만의 해석과 방법으로 소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개개인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점이고, 그럴 만하다는 것이다. 획일화한 것에 대한 염증, 자신만의 것에 대한 확신, 가치에 대한 절대적 기준에 의한 행위라고 보면 된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공급자가 게으르다는 얘기도 된다.

말 안 듣는 소비자 전성시대다. 말 안 듣는 아이를 어떻게 달랠까? 이제 생산자는 부모의 마음으로 소비자를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7	
5		1		3				
	4	7	1					
6			3	7			2	4
7	8						9	5
4	1			9	2			8
					5	4	8	
				8		9		6
	6		4					

5						9	4	
			8		4	5		1
4	1				6		2	8
				6	8			
1	7						8	3
			7	4				
9	5		4				3	6
6		4	1		2			
	2	7						4

스도쿠 정답

8	3	6	9	2	4	5	7	1
5	2	1	8	3	7	6	4	9
9	4	7	1	5	6	8	3	2
6	9	5	3	7	8	1	2	4
7	8	2	6	4	1	3	9	5
4	1	3	5	9	2	7	6	8
1	7	9	2	6	5	4	8	3
2	5	4	7	8	3	9	1	6
3	6	8	4	1	9	2	5	7

5	6	8	2	1	3	9	4	7
7	3	2	8	9	4	5	6	1
4	1	9	5	7	6	3	2	8
2	4	5	3	6	8	1	7	9
1	7	6	9	2	5	4	8	3
8	9	3	7	4	1	6	5	2
9	5	1	4	8	7	2	3	6
6	8	4	1	3	2	7	9	5
3	2	7	6	5	9	8	1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국제 간호사 봉사하고 싶어요 2016년 국가고시합격 운 있어

쪼꼬밍^^여자 81년 8월 27일 음력 새벽 7시

Q (태몽:뱀꿈/어머니가 꾸심)저는 늦은 나이에 대학을 다니고 나서 6년 만에 겨우 졸업했습니다. 국가고시에서 떨어졌고 지금은 취업 준비 중인데 쉽지 않습니다. 오드리 햅번 할머니나 안젤리나 졸리 언니처럼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데요..전 어떻게 해야 세계적인 국제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A 뱀꿈의 태몽도 뱀의 색깔이나 크기와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 아름답고 상냥한 딸을 낳거나 또는 교수나 군인과 같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명예를 거머질 아기를 낳는다는 속설이 있긴 합니다. 귀하는 '새를 입에 문 뱀'과 같아 구변이 청산유수와 같습니다만 언행이 가볍고 변화가 많아 한 우물을 파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관귀학관(官貴學館)으로 지혜가 밝고 학문이 뛰어나 교육자로 성공하거나 간호사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2016년이 되어야 국가고시에 합격운이 되니 그동안은 공부에 매진하시고 그 후 일은 그 때 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6월과 11월엔 말을 아끼시고 구설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는 중소기업 비전 안보여 진로바꿔도 재물 운 있어요

hynin 남자 73년 10월 8일 음력 12시

Q 중소기업에서 총무일부터 시작해서 영업부 일, 공장 현장일을 해 왔으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일 저일 하다 보니 이 회사가 과연 저에게 비전이 있는가 의심이 들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 월급도 밀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갈 길을 찾아야 하는지, 지금 같은 불황에 뭐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 귀하의 성정은 사주구조를 봐서는 수기(水氣)가 유동하고 지혜와 대응력 뛰어나며 처덕도 좋습니다. 천주(天廚)라고 하여 평생 의식이 풍부하며 사람이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간혹 얕은 꾀를 써서 자신의 이익만을 취할 수 있으며 큰일을 만나도 태연자약함이 특징입니다. 이런 성격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잘 견뎌온 것인데 나이 더 들기 전에 진로를 바꿔도 무방해 보입니다. 재운이 38세 이후 상승기로에 있으니 자영업도 괜찮습니다. 생일의 임수(壬水)일간이 가을에 태어났으나 사주 뿌리가 화국(火局)을 이루어 재운이 왕성하니 독립하여 일을 도모함이 바람직한데 음식점부터 관심 갖고 지켜보세요. 그러나 동업은 금물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29일 (음 4월 1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밖으로 나가면 입이 즐겁다. **60년생** 사소한 일은 대범하게 넘겨라. **72년생**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84년생** 뜻을 이루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49년생 고민은 가족과 상의할 것. **61년생** 명예는 길하나 실속은 없다. **73년생** 술자리서 아랫사람과 시비 조심할 것. **85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게 된다.

50년생 가정이 화목하니 만사 즐겁다. **62년생** 꿈과 현실이 다름을 명심할 것. **74년생** 자영업자는 매출이 껑충 뛴다. **86년생** 속이 상해도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라.

51년생 구설수 있으니 말을 아껴라. **63년생** 일찍 귀가하면 반가운 소식 있다. **75년생** 걱정했던 일이 무사히 넘어가 다행~. **87년생** 용기 있는 도전이 필요한 날이다.

52년생 불편한 벗과 관계개선 된다. **64년생** 기회가 왔으니 다시 날아라. **76년생** 웃음 속 가시 돋친 상견례가 있다. **88년생** 상사의 의견은 수용하는 게 이익~.

53년생 건강 빨간불이니 신경 써라. **65년생** 공직자는 외압에 갈등할 일 생긴다. **77년생** 귀를 닫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89년생** 장미 한 송이가 종일 기분 좋게 한다.

42년생 욕심 부린 일은 실속 없다. **54년생** 운전대는 가능한 잡지 말라. **66년생** 주도한 일은 딜레마에 빠진다. 78년생 속내 빨리 드러내면 역습 당하니 조심~.

43년생 조언자 믿으면 끝까지 믿어라. **55년생** 모임에 가면 거머리도 생긴다. **67년생** 어려운 친구 도움 요청 외면 말라. **79년생**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격이다.

44년생 자손들 효도에 즐겁다. **56년생** 사소한 약속이라도 꼭 지켜라. **68년생** 힘이 모자랄 땐 뭉쳐야 산다. **80년생** 시기하는 사람이 많으니 목소리를 낮춰라.

45년생 재롱을 떨더라도 배우자 마음 돌려라. **57년생** 매매 일은 성사된다. **69년생** 어설픈 카리스마는 웃음거리가 됨을 명심~. **81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46년생 뜻밖의 공돈이 생긴다. **58년생** 중독된 취미 때문에 오늘도 해피~. **70년생** 쉼 없이 폭발하는 아이디어에 박수가 쏟아진다. **82년생** 데이트는 언제는 즐거운 법~.

47년생 돈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 **59년생** 답 없는 위로보단 따끔한 한마디가 좋다. **71년생** 스스로 일어서고 주체적으로 움직여라. **83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노승열이 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LPGA 투어 스윙잉스커츠 클래식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리디아 고. /AP 연합뉴스

한국계 남매 세계 골프 석권

노승열 첫 PGA… 리디아 고 프로 첫 LPGA 우승

한국계 신예 남녀 골퍼가 시름에 빠진 국민을 달랠 낭보를 동시에 전해왔다.

한국골프의 '영건' 노승열(23·나이키골프)과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가 28일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노승열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애번데일의 루이지애나 TPC에서 열린 PGA 투어 취리히클래식 마지막 날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를 기록하며 생애 첫 PGA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앤드루 스보보다, 로버트 스트렙(이상 미국·17언더파 271타)을 공동 2위로 따돌리고 우승상금 122만4000달러(약 12억7000만원)와 함께 우승컵을 받았다.

노승열은 PGA 투어 78번째 출전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한국골프사에도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최경주(44·SK텔레콤), 양용은(42·KB금융그룹), 배상문(28·캘러웨이)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네 번째 PGA 투어 챔피언이자 한국 챔피언 중 최연소로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우승으로 페덱스컵 포인트 500점을 받았고, 다음달 8일 개막하는 '제5의 메이저대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과 8월 7일 열리는 PGA 챔피언십, 2015년 마스터스 출전권 확보는 물론 2015~2016년 시즌까지 PGA 투어 출전을 보장받았다.

대회 내내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뜻에서 노란 리본을 모자에 부착한 채 경기에 나선 노승열은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다"며 첫 우승의 기쁨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위로를 먼저 건냈다.

리디아 고는 약 3시간 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레이크 머세드 골프장에서 막을 내린 스윙잉스커츠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하며 프로 데뷔 후 첫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아마추어 시절까지 포함해 세 번째 우승이다.

그는 11언더파 277타의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 상금은 27만 달러(약 2억8000만원)를 챙겼다.

리디아 고는 24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한국계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또 이날은 리디아 고의 생일이었던 터라 이번 대회 우승은 리디아 고에게는 최고의 한 주가 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안방만 오면 작아지는 '몬스터'

류현진 다저스타디움 첫승 또 실패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올 시즌 홈 첫승 사냥에 또 실패했다.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시즌 첫 홈런을 허용는 이전과 다른 부진 끝에 5이닝 9피안타 6실점했다. 팀은 1-6으로 졌고 류현진은 시즌 두 번째 패전을 안았다.

올 시즌 총 7경기에 등판한 류현진의 성적은 3승 2패가 됐고, 평균자책점은 2.12에서 3.23으로 올랐다.

개막 후 39이닝, 지난해부터 45이닝 연속 무피홈런 행진을 이어오던 류현진은 6회초 무사 2·3루에서 조시 러틀리지에게 좌월 3점 홈런을 허용했다.

류현진이 이날까지 원정에서 3승 무패 평균자책점 0.00, 홈에서 무승2패 평균자책점 9.69를 기록하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지킬박사와 하이드같다"고 평가했다. 또 MLB닷컴은 홈에서의 류현진을 링 위의 약한 복서에, 원정에서의 류현진을 사이영상 수상자에 비교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홈과 원정에 각각 15번씩 출전해 홈에서 7승 4패 평균자책점 2.32, 원정에서 7승 4패 평균자책점 3.69를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비디오 판독과 심판불신

최근 프로야구 오심이 잦아지면서 심판들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다. 단지 오심에 그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 승패를 엇갈리게 만들었다. 감독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팬들까지 가세하면서 프로야구계가 요동치고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MLB식 비디오판독이다. 메이저리그는 올해부터 비디오판독을 대폭 확대했다. 볼·스트라이크 판정만 제외하고 대부분 번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메이저리그 판정 번복 소식이 들리고 있다.

우리도 치명적 오심을 막자는 취지에서 비디오 판독 도입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비디오 판독에 반대했던 심판들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오심하면 해당 심판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한다. 아이가 있는 심판들은 죽을 맛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걸림돌은 비용이다. 국내 각 야구장에 설치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메이저리그는 300억원이 들었다. 국내 방송사들의 동의를 얻어 중계화면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각 방송사들은 카메라를 많이 동원해 어지간한 장면은 모두 잡아낸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대목은 비디오판독의 논의가 불신이 낳은 산물이라는 점이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심판부는 특성상 성역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제는 구단, 감독,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파워와 권위를 가진 집단이 됐다. 그러나 동시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조금씩 쌓여온 것도 현실이었다.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우선 심판부의 내부를 들여봐야 한다. 왜 경험이 적은 젊은 심판들이 대거 등장했는지, 심판에 대한 처우와 재교육은 잘되고 있는지, 심판에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심판 수뇌진과 일선 심판들의 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등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모든 상처에는 뿌리가 있다. /OSEN 야구전문기자

침통 피겨 여왕 '피겨여왕' 김연아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 한국조폐공사에서 열린 은퇴기념 메달 공개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김연아는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노란색 리본을 달고 행사에 임했다. 앞서 이 행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으로 17일에서 21일로 연기된 후 다시 한 차례 연기돼 치러졌다. 한편 메달 판매 수익금은 피겨 꿈나무 육성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